

스타 사무장의 천기(千技)누설

-희망댁의 좌충우돌 사무장 도전기-

들어가며

수 년 동안 전국의 여러 사무장님들을 만나왔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농어촌에 대한 사랑과 열정에 감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애환과 고통에 같이 가슴아파하기도 하면서 참으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과 나는 한 잔의 술잔 속에는 사무장으로서의 한계에 대한 아쉬움과 아직까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마을 어르신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딪히는 벽에 대한 좌절이 녹아 있었습니다.

전국에는 수많은 권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권역도 똑같은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환경이 다르고, 자원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돈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사업이라고... 이 사업에서 자원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이라고... 어떤 리더가 있느냐에 따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돌맹이를 보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보석마저도 돌맹이 취급을 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이 사업은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참으로 복잡 다양한 듯합니다. 여기서 조금 민감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고 피해갈 수만은 없는 일인지라 감히 한마디 언급해 볼까 합니다.

권역 위원장(추진, 운영)을 비롯한 추진위원과 사무장과는 뭐라고 한 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관계인 듯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 어느 한 자리가 비어도 안되는 게 이 사업입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어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균형과 조화를 이뤄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더 없이 이상적인 관계가 될 것입니다.

어떤 권역은 위원장의 독단이나 독선으로 고통받는 권역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권역은 사무장의 영향력 행사가 너무 큰 나머지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마음 고생을 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권역은 '있는 교육 없는 교육' 몽땅 시켜 제법 능력있는 사무장으로 키워놓았더니,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가 역량강화한 줄 알고 권역위원회와는 일말의 상의도 없이

더욱이 후임자 물색도 하지 않고 떠나버려 멍하니 빈 하늘만 쳐다보는 권역도 간혹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권역사업은 위원장이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역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장에게는 어떤 사안도 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권역을 경영하는 실무전문가로 자리잡을 수 있어야합니다.

몇몇 권역에서는 사무장을 그냥 경리나 센터관리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장을 청소나 하고 빨래나 하는 잡역부로 여기는 권역은 권역 스스로 발전을 꾀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 빨래 같은 실무는 주민들의 손을 적극 빌리고, 사무장은 주민들이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권역 경영의 기획자이자 관리자 역할을 해야겠지요.

사무장 제도의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권역 사업을 추진하는 권역에 전문성이 부족한 농어촌 주민들을 대신하여 사업추진 기간 동안 전문성을 겸비한 전담인력을 배치, 좀더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권역운영의 기반을 다지고 후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함이고, 또 준공 후에는 주민 스스로 권역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권역에 대한 희망과 열정이 어디 사무장들만의 몫이겠습니까. 전국의 모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권역사업에 발을 담근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이들의 의지와 애정이 함께하는 것이지요.

이 책 속의 주인공 희망택은 권역 사무장으로서의 생활과 사업의지에 한발 더 가까이 가기 위해 탄생되었습니다. 가슴마다 자기 권역에 대한 열정덩어리 하나를 품고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사무장으로 일하고 계신 모든 사무장님들이 희망택입니다.

또 여기 이 책 속의 희망권역은 지금 이 시간에도 부자마을 만들어보자고, 사람 사는 마을을 만들어보자고, 신명난 공동체를 만들어보자고, 두 팔 걷어 부치고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권역이 희망권역입니다.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책 속의 희망권역이 정답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권역의 도전기가 권역사업의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또 희망택이 전하는 사무장으로서의 비법은 새내기 사무장들의 도우미 노릇은 톡톡히 할 것 같습니다.

하여 우리의 희망택, 자신이 경험했던 '권역사업의 모든 것'을 밝힙니다.

등장인물과 배경

1. 때 : 21세기 초반

2. 곳 : 대한민국 행복지향도 열심군

열심군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지방소도시이다. 특별히 눈에 확 띄는 문화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그리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낮은 것도 아닌, 그저 우리 주위 어디서나 마주할 수 있는 평범한 지자체이다.

열심군도 어느 농어촌에서나 느끼는 고령화와 공동화의 고민을 안고 있다. 해마다 태어나는 신생아는 줄어들고 돌아가시는 고령 사망자 수는 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도 늘어가고 있다. 어떻게 해야 열심군이 살기좋은 곳으로 다시 태어날까를 고민하면서 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던 중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만나 농어촌의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곳이다.

3. 등장인물

#희망대

나이 : 마흔하고도 몇 년 더

가족관계 : 남편 하나에 자식 둘

좌우명 : 하면 될까? 된다!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자란 차도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까이꺼' 정신으로 무장한 매사가 낙천적인 '대한민국 촌아지매'이다. 털털하고 덩벙대기 일쑤지만, 주위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유쾌 상큼 발랄 모드를 가지고 있다. 결혼해서 희망리로 들어오면서 요즘 식으로 하자면 인터넷 아이디 '희망대'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멋모르고 농활에 참가했던 20대 시절이 있었다. 추억도 만들고 뭔가 사회에 보탬이 되어 보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안고 딱 한번 떠난 희망마을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잘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고 농촌에서 희망을 찾아보겠다고 고향으로 내려와 농사를 짓고 있던 남편이 그리 멋있을 수가 없었다.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둘이만 행복한 연애를 했고 반대하는 결혼도 했다. 아들, 딸 낳고 살다보니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났

다.

나이는 마흔을 바라보고 삶이 이런 건가 회의를 가지던 찰나 마을에 무슨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인가 하는 사업을 한다고 떠들썩하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된다. 이때부터 희망택의 좌충우돌 사무장 도전기는 시작된다.

#희망권역 추진위원장

나이: 수 년 동안, 늘 내일모레 회갑이란다.

가족관계: 불행히도(?) 마누라가 하나란다. 네 딸을 둔 행복한 딸딸이 아빠. 야구로 치자면 볼 넷으로 간신히 1루 진출했단다.

좌우명: 췌, 더 이상 묻지마라고 한다. 이 책에서는 사무장이 주인공이고, 위원장은 걸다리니 이왕이면 주인공 희망택을 좀 더 빛나는 주인공으로 만들어달라 신신당부한다. 자신이 가진 권역사업 노하우는 아직 일급비밀이니 차후에 밝히겠다고....

하지만 실무자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그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도 리더의 덕목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농어촌의 희망이 희망권역에 달려 있다는 사명감을 안고 집안일보다 권역 일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농업민이다. 젊어 한때는 도회지의 삶을 동경하며 멋지고 폼 나게 살고 싶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희망권역에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며 이팔청춘인양 에너지 넘치게 살아가고 있다.

차 례

1장	열심군 희망리, 권역사업에 도전하다
	희망대, 권역사업에 첫발을 들이다
	맨땅에 헤딩하기, 기본계획서라고?
	미로 속에서 길 찾기, 사업시행
	주민의 힘으로, 권역사업 운영의 과제
	사무장의 이름으로!
	희망대가 밝히는 '권역사업의 모든 것'
	마무리 그리고 새로운 시작
2장	희망대의 비법서 '고참 사무장 되기'
	비법 1. 회의는 이렇게
	비법 2. 법인설립의 하나부터 열까지
	비법 3. 서비스? 고객이 '까무러치게'
	비법 4. 들어나 봤나, 완전무결 회계처리
	비법 5. 똑소리 나는 시설물 관리
	비법 6. 죽었다 깨어나도 기억해야 할 것들(Tip)
	뒷이야기- 무조건 주민은 내 편!
3장	부 록
	1. 주요체험진행과정
	2. 사무장을 다섯 글자로?

1장

열심군 희망리, 권역사업에 도전하다

1. 희망택, 권역사업에 첫발을 떼다
2. 맨땅에 헤딩하기, 기본계획서라고?
 3. 미로에서 길찾기, 사업시행
 4. 자생력, 권역운영의 과제
 5. 사무장의 이름으로!
6. 희망택이 밝히는 '권역사업의 모든 것'
 7. 마무리 그리고 새로운 시작

1. 희망댁, 권역사업에 첫발을 떤다

이럴 수가, 희망댁에게 권역 사무장 제의가 들어왔다.

몇 년 전부터 희망댁이 살고 있는 희망리를 중심으로 몇몇 마을 이장과 마을개발회장단이 농림수산물부에서 주관하는 정책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추진위원회를 구성 하라, 군청 담당자 만나라... 분주하고 떠들썩했다. 추진위원장을 결정하고 마을별 이장님들과 부녀회장, 청년회장 등 마을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어느 정도 조직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었다. 그 무렵이었다. 희망댁에게 사무장 제의가 들어온 것은.

"권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을과 마을, 주민과 추진위원회를 이어 주는 사람이 필요하네. 이미 우리는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사무장을 뽑기로 결정했다네."

그리고 추진위원장님께서서는 희망댁에게 도시에서 공부도 했고, 젊고 성격도 좋으니 우리 권역을 위해서 일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셨다.

추진위원장은 아직 권역이 선정된 것이 아니라 딱히 그렇게 일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하시면서, 서류정리, 회의록 정리, 추진위원회와 주민 간 연락, 그리고 소소하게 생기는 일들을 처리하면 된다고 하셨다.

"지금은 권역에 봉사하는 것이지만, 권역이 선정되어 사업이 시행되면 사무장 활동비가 지급될 거네."

희망댁은 솔깃해졌다. 애들도 어느 정도 키웠고, 희망댁이 전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텃밭만 가꾸고 있기도 했거니와, 내심 '나 같은 인재가 이렇게 집안에서 썩는 건 국가적인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뜻 승낙을 하고 말았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위원장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본 희망댁, 정작 이 사업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었다. 그냥 귀동냥으로 들은 게 전부였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약간은 두렵기도 했다. 사실 예전에는 잘나가던 때도 있었지만, 집안에 들어왔어 세상과 담을 쌓고 산 세월이 얼마인가 싶었다. 그 세월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싶기도 했다.

그러나 희망댁이 누구던가. 희망댁은 '그까이꺼' 정신으로 무장된 천성적

으로 낙천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추진위원장님에게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구하고,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와 포털사이트 Daum에 '희망을 가꾸는 농촌마을이야기'(<http://cafe.daum.net/nongchon1000>)라는 카페를 섭렵하여 농어촌지역개발 정책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하고, 지침과 매뉴얼을 구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기 시작했다.

몇 년간 심하게 휴식을 취하던 희망택의 뇌는 한꺼번에 이것저것 마구 입력하자 반란을 일으키듯 계속되는 두통을 유발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으악, 분명 입력은 한 것 같은데 출력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희망택은 수험생이 요점정리 노트를 기록하듯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았다. 그제사 뭔가 좀 잡히는 것 같았다.

'그래 아직 내 머리는 죽지 않았어... 쓸 만하잖아?'

아이고, 희망택 혼자 흐뭇해지는 하루였다.

마을개발협의회가 구성되어 첫 회의를 하던 날,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지역 기관장, 전문가, 주민들에 이어 군수님도 참석하셔서 우리 희망권역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마을개발협의회 공동 위원장으로 권역사업의 전문가를 위촉했다. 탈무드에도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명언이 있지 않은가. 희망택은 '권역사업의 모든 것'을 익혀 자신이 권역과 주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눠 줄 수 있는 관계를 제대로 만들어 가야 함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마을개발협의회 첫 회의를 끝낸 후, 얼마 동안은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다시 몇 번의 주민회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공동으로 작성해 줄 전문가를 선정했다.

희망택은 추진위원들과 함께 선행 권역을 학습하기 위해 견학도 몇 차례 다녀오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도 받았다. 아하, 역시 직접 보고 들어야 느끼는 게 많은가보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대부분의 주민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교육을 한다고 나오시라고 연락하고 찾아가도 콧방귀도 안 뀌던 분들이 차츰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다.

'아... 우리 마을이 권역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이렇게 주민들끼리 모여서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 것이다. 이 사업이 이런 거구나.'

희망택은 권역사업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마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희망택의 가슴에서는 날마다 뭔가 뜨거운 것이 솟구치는 듯 했다.

희망택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마을마다 숨어있는 자원을 찾고, 희망권역의 특성을 알아가면서 권역 내 마을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열심히 담당자와 추진위원, 그리고 관심 있는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마을별로 발전방향을 잡고 어떤 사업을 해야 권역 마을사람들이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도 같이 고민하였다. 서로 새로운 의견을 내고 협의를 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희망택은 살아있음을 느끼고 권역의 희망을 볼 수 있었다.

희망권역도 다른 권역처럼 마을별로 서로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고자 싸우기도 하고, 한때는 서로 반목하기도 했다. 그래서 좌절할 순간도 있었지만, 위원장님의 끊임없는 설득과 희망택의 웃음, 그리고 서로 부딪힌 한 잔의 술잔들이 모여 이제 웃을 수 있는 권역이 되었다.

틈틈이 전문가의 컨설팅도 받아가면서 마을개발협의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부군수님 이하 많은 분들이 권역의 현안사항에 대해 의논하시고 해결방안도 제시해 주셨다. 또한 권역에서는 추진위원회 회의를 1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하고, 현안 사항이 있을 때마다 회의 소집을 했다. 그렇게 추진위원회 회의는 우리 권역 사업이 끝날 때까지 쭉 진행되었다.

몇 달간의 행복한 고생의 결과물이 드디어 나왔다. '희망권역 사업계획서'가 바로 그것이다. 1차 도 심사를 가볍게 통과하고 2차 농식품부 심사도 통과했다는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다.

"드디어 우리 희망권역이 진짜 희망을 품고 이름값을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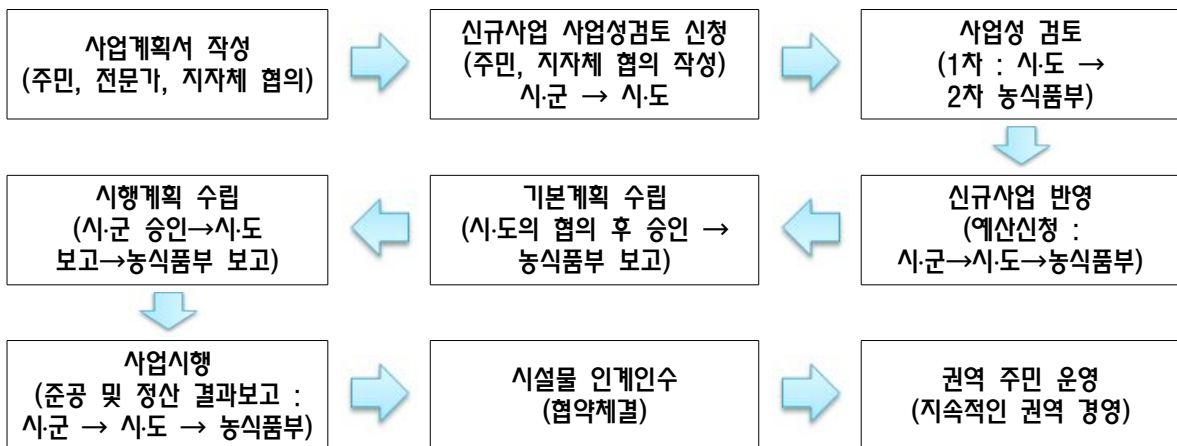
군 담당자의 사업성 결과발표 소식이 있던 날, 권역에서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아놓고 권역 주민들이 모두 모여 북 치고 장구 치고 잔치를 벌였다.

'도시살이 하는 사람들이 어찌 알리. 농촌에서 사는 사람만이 이 맛을 안다구요.'

희망택은 이날 잔치마당의 허드렛일을 도맡아하면서도 발바닥이 땅에 닿지 않은 듯, 한 마디로 날아다녔다.

권역사업 한눈에 알아보기!

- 사업의 목적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유지 도모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 ※ 시행절차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름
- 추진방향
 - 동일한 생활권·영농(어)권 등으로 동질성을 가지며,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규모 권역단위로 개발
 - 지역주민, 지자체, 지역내 관련전문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추진
 - 농산어촌다움을 유지 보전하는 친환경적인 개발
 - 지역의 잠재자원을 특성화하여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권역발전 계획 수립 후 추진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 도로·교통, 상하수도, 재해대비, 마을정비, 복지시설, 문화시설, 운동휴양시설 등
 - 지역소득증대 : 공동저온창고, 공동선별시설, 소규모가공시설, 농산어촌체험시설, 특산물판매장, 문화체험관 등
 - 지역경관개선 : 경관계획수립, 지붕·담장정비, 가로경관정비, 간판정비사업 등
 - 지역역량강화 : 교육·연학, 홍보·마케팅, 컨설팅, 정보화구축 등
- 지원기준 : 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한도 : 25억~70억 범위내 차등지원
- 사업기간 : 규모에 따라 3~5년
- ※'10년까지 선정된 농촌마을 301권역은 기본계획 1년 사업시행 5년
- 사업추진체계



2. 맨땅에 헤딩하기, 기본계획서라고?

희망권역이 선정되고 사업이 시작되기까지의 기간은 사업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

"추진위원들의 열의가 식지 않도록 이 분위기를 이어나가야 하는데..."

희망권역 추진위원장님은 정기적으로 추진위원회 회의도 하고, 군담당자를 불러서 전문가 초청교육을 기획해 진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의 크고 작은 결정사항을 주민총회를 통해 보고하기도 했다. 사업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서 크게 결정할 사항은 없었지만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며 해결해나갈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었다. 희망택은 회의 과정을 지켜보며 바짝 긴장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권역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사업부지는 어디가 좋을 것인지, 부지 제공을 위해서 지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참여시킬 것인지, 시설이 완공되면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소득사업의 주민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권역운영법인을 설립 할 것인지, 우리 권역에서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 시설물별로 운영자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 꼼꼼히 논의하고, 결정해 나갔다.

회의가 많을수록 준비하고 기록하고 정리해야 할 희망택의 일은 넘쳐났다. 하지만 우리의 희망택, 권역의 미래를 생각하며 주민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고자 노력하는 시간들이라 여기며 더욱 일에 매달렸다.

물론 예상치 못한 일이 눈앞에 펼쳐져 당황스런 순간도 있었다. 사업부지와 관련해서 마을과 마을간, 또는 주민들 간의 의견 대립도 있었고, 큰 소리가 오가고, 아주 가끔은 멧살잡이도 있었다. 이때 추진위원장의 '한 방 정리'. 아, 역시 추진위원장의 리더십과 중재가 필요했다.

희망권역도 만약에 선행권역의 실패 사례를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성공사례의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실패사례를 통해 우리 권역이 나아갈 방향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했다. 주민들의 불만을 그대로 무시하고 추진위원회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무리하게 진행하거나, 문제를 감추고 쉬쉬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서 결국은 그 문제가 훔아 터지는 경우, 주민의 의지나 의견은 뒷전이고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경우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들을 보았기에, 희

망권역은 문제가 발생하면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큰소리 내서 싸우더라도 반드시 매듭을 짓기로 했다.

‘팔십 노인도 세 살 먹은 아이에게 배울게 있다고? 역시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게 우리네 삶이야. 하물며 권역 사무장이라는 막중 임무를 맡은 나는 얼마나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할까나?’

희망택은 내심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마음을 야물게 먹었다.

#기본계획 수립 완성, 살림하듯이 꼼꼼히 체크!

드디어 고대하던 기본계획수립 결정이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본계획 수립 조사반이 희망권역을 찾아왔다.

"조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고 잘 합시다."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말씀에 희망택은 권역 구석구석을 누볐다. 몸은 힘들고 피곤하고, 머리는 복잡했지만, 마음은 청춘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희망택은 뭔가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이 우리 농촌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뿌듯해지기까지 했다. 설령 혼자만의 착각이었어도 희망택은 행복했다.

기본계획 조사반, 군 담당자, 추진위원들이 모여 몇날 며칠을 고민한 결과 기본구상이 수립되었다. 주민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기본구상이 확정되고 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몇 번의 주민공청회와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완성되었다.

희망택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을 지켜보면서 관련법의 검토와 우리 권역 내 기존의 개발 사업이나 계획되어있는 개발사업의 현황을 사전에 검토해야 됨을 알았다.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았다.

‘사업을 준비하면서 선진지견학도 다녀오고, 몇 차례 교육도 받았지만, 모든 주민이 이 사업을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인가 보다.’

상향식사업이라는 말에 마치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오해하고 있는 주민들이 참으로 많았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다.

상향식사업이란 법과 지침의 범위 내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인의식을 갖고 함께 참여하는 사업인 것인데, 대부분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희망권역 추진위원회에서는 이래서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않을까 싶은 의견이 오고갔다. 추진위원회에서는 권역운영기금을 마련하여 자발적으로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수립기간 중에 주민 교육을하기로 결정했다. 역시 교육내용과 자료 등을 챙기는 실무는 희망택의 몫이었다.

매주 목요일 저녁은 희망리 마을회관에서 교육하는 날로 정하고, 주민들에게도 알렸다. 상향식 사업의 이해와 동기부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 국내외 선진사례 등의 내용으로 하루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실시했다.

처음엔 주민들의 호응이 없었다. 그래서 희망택은 수요일만 되면 전화도 드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각 마을 이장님께 목요일 아침, 점심에 동네 방송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다. 이제 희망권역 주민들은 매주 목요일 저녁만 되면 마실 나오듯이 마을회관으로 모인다. 습관이 되어 버리신 것이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이 지역역량강화사업이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우리 지역에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주민이 없으면 자원은 아닌 것이다. 추진위원회에서는 권역과 사업의 특성에 맞는, 그리고 앞으로 권역이 자생할 수 있는 것에 목표를 두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 아닐까?'

희망택은 감히 생각해 보기도 하였다.

기본계획 승인이 나고 세부설계가 시작되었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그렇게 부지문제에 신경을 썼건만 몇몇 사업에서 부지문제로 설계가 지연되기도 했다.

부지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본격적인 설계가 시작됐다.

"우리 권역의 경관과 잘 어울리고, 권역의 특성을 살리고, 우리 주민이 사용하기에 편리해야 합니다."

추진위원장님의 거듭되는 강조와 함께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설계조사반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계획적으로 말이다.

부지를 선정하는 것만큼이나 센터 건물을 짓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권역의 얼굴이며, 사업의 중심부이기 때문이다. 활용도를 충분히 반영한 센터를 지어야 했다.

계획수립시, 눈 감고도 알아야 할 것

○ 계획수립시 주의사항

- 시설물 부지와 관련하여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 농업진흥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주민이 제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매각 또는 임대사용 등 동의서(확약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 시설의 부지는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여 원활한 사업주진이 되도록 검토한다.
- 지역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계획할 경우에는 반드시 10가구 이상 법인체를 구성하고는 참여자가 확정되어야 하며, 자세한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주민자부담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은 주민 자부담(출자) 확약서(공증 등)가 첨부되어야 한다.
- 자부담을 수반하는 소득기반시설(체험시설 제외)의 소유권 등기를 위해서 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 또는 시설비로의 편성여부를 예산편성 이전에 결정하여 추진하여야한다.
 - ※ 소유권등기를 법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민간보조로 편성하고 시장·군수로 등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비로 편성한다.
- 추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은 의사결정과정에서 회의록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 시설규모가 적정하게 산출되어야 하며 가급적 마을에서 유지관리 및 운영이 가능한 규모로 계획한다. 또한 운영유지관리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야한다.
- 약취발생시설의 경우 약취방지법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등은 연간 이용율을 높이도록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하며, 규모의 적정성은 물론 운영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시설물의 배치 및 건축 계획은 지역의 농산어촌마을의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경관, 역사, 문화기능에 적합한 특성을 살려 환경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계획한다.

시설물 계획시, 눈감고도 알아야 할 것

- 시설물 계획시 관련법 저촉여부
 - 해당 시설이 설치 가능한 용도지역/지구/지역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검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의 허가, 지구단위계획 등)
 - 농지법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지관리법 (산지의 전용허가 등)
 - 건축법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인허가 사항)
 - 하천법 (하천구역 안에서의 수목식재, 형질 변경 등)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바다 또는 호수 등 공유수면매립 관련)
 - 연안관리법 (연안용도구역 확인 등)
 - 문화재보호구역 안에서 문화재 보호에 관한 사항
 - 문화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경우는 문화재청장과 협의 등
 - 건축물의 경우
 - 건축법 등 검토
 - 소방관련법
 - 전기사업법 등 검토
 - 체험관광시설을 할 경우 도농교류법 등 검토
 - 관광진흥법, 자연공원법 등 검토
 -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여부
 - 산림을 전용하는 경우
 - 산지관리법에 의한 협의 및 인허가
 - 사방사업법에 의한 협의 및 인허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하천구역 안에서의 행위
 - 하천관리청과 사전협의를 통해 계획수립(제방 수목식재 등)
 - 도로와 관련된 계획은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

센터 건물은 가장 꼼꼼히 따져라!

구 분	중점 검토사항
전체 디자인 및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의 특성을 반영 - 권역의 경관과 조화롭게(삭막한 도시적 디자인 지양)
외 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감재 재질 - 권역 특성을 반영한 마감재 색상 및 재질
바 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별 바닥 마감재 - 공간의 용도를 고려
지 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의 모양 및 마감재 재질
공간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활용을 고려 - 다목적 활용방안 고려(가변형 칸막이 등) - 회의장, 주방시설(공동식당), 사무실, 체험장, 숙박시설,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침구류 및 체험도구 보관실 등
창문과 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문의 수와 방향 및 크기, 재질 - 건물의 방향을 고려 - 이중창, 방충망 등 ○ 공간별 출입문의 위치 및 재질
단 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열재 종류 및 시공방법
냉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별 냉난방시설의 종류
계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의 위치 및 폭, 높이 등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동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방내부(수도, 가스 등), 공간별 배치
화장실 및 샤워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의 위치 및 변기 수 - 화장실의 공간규모와 건물의 규모(수용인원)를 고려 - 타일, 변기 등의 색상 및 재질 ○ 샤워시설의 위치 및 샤워기 수 - 건물의 활용을 고려(개별/공동) - 세면대, 샤워기 재질, 색상,
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등 및 외등의 위치, 디자인, 재질 - 공간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전등의 수와 위치, 스위치 위치 등 ○ 외등은 출입문의 위치를 고려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기, 수용인원, 갯수, 화장실(세면시설)위치 등 - 건물의 규모와 활용 및 운영을 고려 - 냉난방 시설(전기판넬, 보일러, 개별 냉방, 공동냉방 등) - 주방시설 설치 여부 및 내부 화장실 설치 여부 등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관리를 고려 - 태양열, 태양광, 심야전기보일러 등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새겨들 것!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 주민총회에 보고를 했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영 신통치가 않았다. 가슴에 와 닿지가 않는 모양이다.

'시설물을 운영할 주체가 주민인데,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 희망택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주민들에게 우리가 운영해나갈 시설물을 한눈에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다.

희망택은 고민 끝에 설계하시는 분들에게 투시도를 보여줄 수 없겠냐고 부탁을 드렸더니, 난감해 하신다. 역시 비용 때문이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이었다. 어차피 희망택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에 담당자들을 찾아 가는 수밖에 없었다.

세부설계를 하다 보니 몇몇 사업에서 기본계획 수립시 산정했던 사업비를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희망권역은 다행히 20%를 초과하지 않아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일은 없었지만, 기본계획 당시와 주위여건이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비의 2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했다.

드디어 시행계획이 승인이 나고 군청과 면사무소에 시행계획 승인내용이 고시되었다. 희망택은 가끔 능력의 한계를 느끼며 괜히 사무장직을 맡았나 싶고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는 현실이 힘들기도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지 모르게 신이 났다. 뭔가를 기대하고 하나씩 만들어가는 일을 할 수 있어 희망택은 행복했다.

시행계획 수립시 주의사항

○ 시행계획 수립 시 주의사항

- 시행계획수립 시 기본계획의 주요사항 또는 사업시행시 시행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권역발전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변경이 가능
- 예산총액의 20%이상의 계획변경(내역사업=기능별사업)이 있을 경우, 사전에 기본계획변경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협의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

-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 또는 공고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3. 사업비 필요금액
 4. 사업 예정 기간
 5. 사업의 효과
 6. 사업시행자
 7.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시
 -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경우: 관보에 게재
 -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
 - 다. 가목과 나목 외의 경우: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2. 공고
사업 시행지역의 시·도청, 시·군·구청 및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7일 이상 게시

3. 미로에서 길 찾기, 사업시행?

희망권역사업의 실질적인 첫 삽을 뜨는 날이었다.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귀빈들께서 권역에 오셨다. 온 동네가 다 시끌벅적하다. 귀빈과 권역 주민이 함께 돼지머리(행복하게 웃고 있는 잘생긴)와 팔 시루떡을 상에 올려놓고 무사와 안녕, 권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고사를 드렸다.

여기저기서 똑딱똑딱 공사가 진행되었다. 희망택은 크고 작게 발생하는 민원들을 처리하기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니면서, 가끔은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었다. 아무리 현대화 되었어도 어르신들의 생각을 하루 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일인 것이다. 아직도 어르신 중에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 이 벽을 어찌 뛰어넘어야 한단 말인가? 싶어 좌절도 하지만, 희망택이 누군가? '내 앞에 거칠 것은 없다'는 희망택 아닌가?

"어르신, 요즘은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대요."

대포 한 잔 사들고 쫓아다니며 말리고 설득해본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추진위원님과 그분의 절친인 분들을 포섭해서 말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희망택이 다 하는 거 같지만, 실은 희망택은 이 사업의 보조자다. 사무장은 결정 권한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실무자인 것이다.

공자도 말하지 않았던가.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희망택은 이 사무장이란 자리를 즐기면서 일하고 싶었다. 시키는 일만 해서는 주체적인 변화 발전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시설물을 운영할 몇몇 마을 분들을 해당 시설물의 명예 감독원으로 참여시켜 주인의식을 높이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민원에 대비하고, 주민의 생각을 전달하는 조정자 역할을 부여하였더니,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 역시 사람은 뭔가 책임이 주어지면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 희망택은 앞으로 권역을 경영 할 때 모든 주민에게 각자 한가지씩의 역할을 지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여겼다.

"누가 나에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냐고 물

어본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소득사업이라고 말하고 싶다."

희망택은 소득사업을 떠올리면 벌써부터 머리가 지근지근하다. 소득사업이란 것이 돈과 관련된 일이라 모두들 굉장히 예민했다. 누군가의 이권이 개입된다면 더더욱 예민해졌다. 소득사업은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자부담분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자부담 납부 기한을 정하여 주민들에게 각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열심히 통장으로 반드시 입금할 것을 명시한다.

희망권역은 이미 주요 참여자들은 결정이 된 상태였지만, 그래도 마을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문을 열어 놓고 참여를 알리는 공고문을 마을 곳곳에 붙이고, 각 마을별로 방송도 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다.

"아이고, 제발 이 사업이 대박나서 주민분들 주머니도 불러주고, 우리 희망권역도 부자마을로 살 수 있으면...."

희망택은 간절히 바랐다.

#소득사업 준비는 어떻게?

소득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희망택은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았다. 전부 생소한 분야인지라 찾아볼 것도 공부할 것도 산더미였다. 위원장님과 위원들도 다른 때보다도 훨씬 분주하게 자료들을 찾아 보는 것 같았다.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설립해야 할 것인지, 각종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직구성과 이익분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알아야 할 것과 결정해야 일들이 많았다.

물론 사업의 주체인 법인이 결정할 문제지만, 소득사업은 권역사업의 부분이기 때문에 권역에서 관여해야 할 부분이 필요하며, 소득법인이 완전히 설립되기 까지 권역에서 많은 부분을 도와줘야 했다.

소득사업은 소득법인이 부지를 제공하고, 20%의 자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그래서인지 시설이 준공되고 소유권 등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법인에서는 법인으로 등기하기를 원하고, 사업 지침에는 안전장치를 하계끔 되어 있다. 만약에 소득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시행했다면 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고, 군에서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상권은 그 기간이 무려 30년이라고 한다. 어차피 희망권역은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해서 8:2 지분등기를 하기로 했

다. 가장 먼저 군과, 추진위원회, 소득법인은 지분등기에 관한 내용을 운영 협약서에 명기해서 3자간 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군으로 보존등기를 한 후 법인으로 20% 지분양도 등기를 하는 것으로 소유권 등기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했다. 법인 구성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업에 적극적이기를 바랄 뿐이다.

"이거 하나로 부자권역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 밑거름이 될 수는 있지 않겠나?"

위원장님의 말씀에 희망덕도 내심 기대를 잔뜩 걸었다.

법인의 종류에 따른 구분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2010.4.26.시행) (과거)농업·농어촌기본법 제15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2010.4.26.시행) (과거)농업·농어촌기본법 제16조
설립 목적	○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 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 증대 도모	○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 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 증대 및 위탁영농대행
회사의 형태	○ 민법상의 조합	○ 상법상의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의 형태
사업	○ 농림어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 농림어업에 관련된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 농림수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기타 조합법인의 목적 달성을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농업의 경영, 농산물유통, 가공, 판매, 농작업대행 용역 및 아래 부대사업 등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 농림수산물의 매취·비축 사업 ○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조합원의 책임 한계	○ 법인자산처분으로 상환 불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개별조합원의 지분비율에 의거하여 책임	○ 합명회사—무한책임 ○ 합자회사—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 주식회사, 유한회사—유한책임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지의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 2조 3호의 규정 가.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업인일 것. 나.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의 2분의 1이상이 농업인일 것
설립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농산물생산자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농산물생산자단체
발기인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5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명(무한 2인), 합자(유·무한각 1인) 유한(유한2-50인), 주식(1인)
출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의 출자한도 없음(기존의 3분의 1규정은 삭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농업인의 출자액의 합계는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3/4을 초과할 수 없음
의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1표가 원칙이나 정관에서 정할 시 출자금액에 비례하여 의결권 행사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지분에 의함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소득에 대하여 전액면제 ○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조합원 1인당 연간 1200만 원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66조) ○ 최저한세 적용이 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소득에 대하여 전액면제 ○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연도부터 5년간 (2004년 장업한 경우는 3년간) 법인세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66조) ○ 농업소득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배당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소득에 대한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전액면제 ○ 농업외 소득 연간 조합원 당 12백만 원 면제, 12백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5%저율분리과세되며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음 ※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세무의무가 종결되는 제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음 ○ 주민세포함 15.4% 원천징수
특성	<p>공동시설을 이용한 축산업 및 작물재배업, 농작업 대행사업, 개별 생산 농산물의 권역공동브랜드를 통한 공동출하 사업, 농산물 단순 가공사업, 권역단위의 농산물판매장운영사업, 개별 농가단위의 민박사업의 중개, 예약관리 및 홍보, 농가단위의 농촌체험사업, 농가부업사업을 통한 생산 제품의 판매 사업 등 주주의 출자금액이 동일하며 의사결정에 있어서 마을단위, 권역단위의 합의가 필요한 사업. 소규모 마을 단위 사업등에 적합</p>	<p>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문경영인 및 내부의 상당한 역량이 필요한 가공사업, 식당업, 폐교 등의 마을공동단위의 민박사업으로 참여자가 마을 주민의 일부가 참여하며, 주주간의 출자금액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규모화, 전문화하여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업 등에 적합</p>

세금관련 사항

종 류	내 용
양도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에 농지 및 초지 현물 출자 시 양도세면제 단, 3년 내 출자지분을 양도 시 세액을 주장함. ○ 영농조합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 농업회사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 68조 2항 ※ 농지 및 초지에 한하여 양도세가 면제되므로 임야, 대지 등을 현물 출자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됨. 다만 아래의 이월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양도세가 법인에서 현물 출자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이월이 가능하게 됨. ○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는 제외)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영농조합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7항 ○ 농업회사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
부가가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농작업 대행, 선별, 포장용역은 면제되나 운반, 저온저장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조세특례법 제105조 제2항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10.12.30, 대통령령 제22575호) ○ 농·축·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은 농업법인이 직접 작물재배 및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됨. 따라서 공동구매, 도소매업의 경우 농업인이 직접 환급을 받아야 함.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2항) :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농업용기계, 축산업용기자재, 사료법에 의한 사료, 임업용기자재, 친환경농업용기자재 등
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제1항 및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12.12.31까지) ○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12.12.31까지)
등록면허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제1항, '12.12.31까지)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용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다만, 중앙회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영농자금, 영어자금, 영림자금, 축산자금을 용자하는 경우에 한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제1항)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용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차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제1항)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중업원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중업원분을 면제(지방세법 제267조제3항) ※ 다만, 영농·영림·가축사육·양식·어획 등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중업원분에 대하여 면제하지 아니함.

#지역역량강화사업 - 사무장의 능력을 한껏 발휘하라!

시설물 공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지역역량강화사업도 용역 발주가 나갔다. 유수의 몇 개 업체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권역으로 찾아오고 위원장님과 사무장인 희망택을 만나 이것저것 물어 보고 갔다. 열성적인 업체는 그 이후에도 몇 번을 찾아와 희망권역을 둘러보고, 주민들을 만나보고 무엇이 필요한지, 주민의 성향은 어떤지 알아보고 다녔다.

"업체 제안평가때 추진위원장님이 참가하셔야 합니다."

라는 연락이 희망택에게 왔다. 응찰한 업체 목록을 받아서 선행권역 사무장님들과 공사감독 등 여기저기 레이드를 돌려서 나름대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평가 전날 위원장님께 드렸다.

"위원장님의 선택이 우리 권역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아시죠? 사람을 잘 키워야 한다는 것..."

희망택이 재차 강조를 하며 뉘달을 했더니 웃으신다.

희망택이 생각하기에는 역량강화사업 업체선정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았다. 시설물은 잘 지어졌는지, 잘못됐는지 금방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역량강화사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권역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다. 사람을 남겨야 하는 절체절명의 이유를 갖고 있는 것이다.

보는 눈은 다 같은 것일까? 업체 선정은 만장일치로 수월하게 끝났다. 희망권역 추진위원회가 원하는 업체가 선정되었고, 담당자와 만났다. 만난 첫날부터 시행계획서를 앞에 두고 희망택은 이것저것 따졌다. 따진다는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희망택의 입장에서는 권역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건 바로잡아야 했기 때문이다.

희망권역은 매주 목요일이 교육하는 날로 주민들이 모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교육의 시기가 문제 되는 건 아니지만, 주제에 따른 시기, 대상, 강사, 주제별 횟수 등과, 컨설팅의 주제, 시행시기, 참여인력, 성과품, 홍보·마케팅 분야의 종류, 방법, 시행시기, 홈페이지 구축 시기 및 일정, 전산장비 구축 범위와 규모에 대해 상의하고, 권역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는 사무장인 희망택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해주었다. 덕분에 희망택은 한동안 손에서 놓아버린 책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았던가! 사무장인 내가 알아야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할 것이 아닌가!!!'

희망택이 졸린 눈을 부릅뜨고 책을 보고 있자니, 불쌍해 보였던지, 여지껏 팔 한번 제대로 주물러 준 적 없는 신랑이 넋지시 안마를 해 주는 것이 아닌가? 희망택, 살다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싶었다. 엄마가 책을 보고 있자니 애들도 덩달아 공부를 하는 것 같아 희망택은 괜히 뿌듯해지기도 했다. 앞으로 꼭 이런 모습으로 살아주리라 다짐하지만,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장담 못하리라.

희망택은 지역역량강화사업 가이드라인을 외우다시피 하고, 마케팅이나 홍보 관련 책과 틈틈이 지역개발관련 책도 보았다.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권역 주민을 디자인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교육이 있을 때마다 교육 자료와 강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희망택은 강사 흉내를 내면서 권역 자체 교육 일에 다시 한 번 반복 학습을 하였다.

희망택은 소식지는 권역 사업의 역사를 남기고, 권역의 소식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외부에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매체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우리 권역 신문을 만듭니다."

사업초기부터 발행하고 싶었지만, 권역기금이 여의치 않아 미뤄 왔던 일이었다. 역량강화사업이 시작되면서 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사무장의 기획능력과 발품이 절실한 일이었다. 권역의 여기저기를 찾아다니고, 어르신들의 소식을 기사로 작성해서 업체에 넘겨주면 약간의 편집을 거쳐 발행되었다.

시설사업 추진에 맞춰 컨설팅도 시행하고, 홍보도 하고, 가끔 이벤트도 했다. 어느 정도 센터 건물이 지어졌을 때였다.

"우리도 도시민 초청 행사를 해 보면 어떨겠냐?"

마을 어르신들께서 먼저 제안을 해오셨다. 으악, 변해도 무지 변하셨다. 소극적이던 어르신들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점점 '열혈분자'가 된 것이다. 희망택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인맥(결국 친구가 부녀회장으로 있는 도시 아파트부녀회였지만)을 동원해서 이벤트 행사를 계획했다.

행사를 앞두고 권역을 단장하라, 할 거리, 놀 거리, 볼거리, 살거리를 준비하면서도 동네 어르신들은 마냥 즐거워하셨다. 아직 뭔가 할 수 있다는 즐거움이었다. 어르신들은 이제 더 이상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시설물 운영은 주민이 직접 관리!

권역 시설물이 하나둘 완공되어 갔다. 시설별 등기이전과 인수인계를 위해서 실제로 시설물을 활용할 주민들로 시설물 인수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인수 검토위원회는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하고 예비준공검사에도 참여하였다. 시설물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키운다는 큰 막강 책임을 걸고 말이다. 원래 자기 재산은 스스로 관리해야 하지 않는가.

사업이 끝나갈 즈음 추진위원회의 이슈는 권역경영에 관한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었지만, 이제는 운영에 맞는 조직 재정비가 필요했고, 역량강화사업도 경영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 나가야 했다.

시설물 인계인수 및 운영 주의사항

-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지역주민이 선량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
- 인수인계 준비사항
 - 시설물 인수인계서
 -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 사업비 준공도서(지역역량강화사업 포함)
 - 운영지침서
 - 주요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 등기이전서류 등 등록에 관한 서류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점검 및 운영 절차
 -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등
- 유지관리 과정에 공사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시공회사 또는 위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

관계법령	하자보수 보증금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내지 제6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내지 제73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대금의 최종 지급전까지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 · 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2~10% - 최종검사 완료 후 즉시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 발급 및 하자보수 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 -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의 경우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관 만료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담보책임기간 ·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 공사의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 기간 설정(1~10년) - 하자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 실시 ·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 최종 검사 실시

- 시설물에 대한 활용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일지를 작성

4. 주민의 힘으로, 권역사업 운영의 과제

본격적으로 주민의 역할이 중요한 단계에 돌입했다. 사무장으로서의 희망택의 능력을 시험하는 단계이기도 했다.

'나와 주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권역이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어.'

희망택은 어느새 긴장이 되고 있었다.

체계적인 권역을 경영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조직으로 재정비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운영위원회로 조직을 변경할 것인가, 권역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법인을 설립할 것인가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으로 희망권역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추진위원장님의 제안에 대부분의 위원들의 동의로 법인 설립으로 결정이 났다.

#권역운영법인을 만든다!

권역법인을 설립하고 정식으로 사업자등록도 하였다.

그리고 카드단말기도 설치했다. 희망택은 처음에는 카드단말기 사용이 영익숙치 않았다. 불편하게만 여겨졌다. 하지만 요즘은 어딜 가나 누구나 카드를 사용한다. 카드사용이 되지 않으면 고객은 화를 내거나, 다시 찾고 싶지 않게 된다.

희망택의 자신의 경우를 돌아봤다. 어디 여행을 가든 장을 보러 가든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면 분실의 우려도 있고 해서 부담스러워서 웬만하면 카드를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요즘은 대부분의 기업체나 단체에서도 법인 카드를 사용하고 비용처리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우리도 작게는 권역을 찾는 고객의 편의와 크게는 권역 경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카드 단말기를 설치했다.

이제 정말 우리 권역이 주식회사로 변모한 것 같았다. 권역법인은 본사가 되고, 소득법인과 각 마을들은 지사가 되고 권역 주민전체가 주주인 회사, 권역 그림이 좀 더 확실해졌다. 내노라하는 대기업이 부럽지 않았다.

회사를 운영해 나갈 운영진을 구성하고, 실무를 담당할 실무 조직(시설물 유지관리)도 구성했다. 이 회사에서 사무장인 희망택의 위치는 어디일

까? 희망택은 자신이 총무부장과 경리부장을 합친 정도의 중간 관리자급이 아닐까 혼자 생각해보았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준비와 운영규칙 세우기

방문자 센터는 희망권역에서 제일 큰 건물이다. 이 건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2급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권역에 방화관리자 수첩을 가진 분이 없어 사무장인 희망택과 주민 두 명이 방화관리 교육을 받기로 했다.

한국소방안전협회(<http://www.kfsa.or.kr>)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꼬박 4일간 받고 마지막 날엔 시험도 쳤다. 세월이 흘러도 시험의 두려움에선 벗어날 수가 없나보다. 희망택은 60점을 향해 4일간은 수험생(?)이 되고나서야 '방화관리자 수첩'이란 자격증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같이 교육을 받은 주민들은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어르신들이다.

"아이고야, 나이 드니까 자꾸 잊어버려. 옆에 사람꺼 컨닝했다."

며칠 밤샘 공부를 하고도 불안했던지 슬쩍슬쩍 컨닝도 불사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권역에 3명의 방화관리자가 탄생했다.

아, 할 일 많은 사람은 타고났다고 했던가. 우리의 희망택, 권역에 시설물이 늘어나니 할 일이 늘어났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일들이 덮쳐왔다. 먼저 권역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산을 종류별, 설치장소별, 운영관리 책임자별로 정리하고, 시설물에도 관리책임자 안내판도 부착하고, 자산에도 장비담당자 표를 부착하고.... 하나씩 해치워나가니 조금씩 체계가 잡히는 듯했다. 그제사 희망택은 집에서 두 발 뻗고 긴 잠 한번 잤다.

희망택은 자산 정리를 끝내고, 운영에 관한 규칙 세우기에 돌입했다.

'침구류 세탁, 숙박시설의 청소는 어떻게 하지?'

'숙박 입·퇴실 및 시설물 이용료 규정은?'

'공동식당의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무엇보다 주민들을 어떤 방식으로 참여 시키지?'

'체험프로그램에 어떻게 농가를 참여시키고 소득은 또 어떻게 배분하지?'

'회계 관리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하나?'

희망택은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았다. 다행히도 운영회의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규칙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방화관리 법령조항

<p>2급 방화관리자 선임 대상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조1항)</p>
<p>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p> <p>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u>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u></p> <p>※ 별표 4, 경보설비 4항(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 특정소방대상물) 가항.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나항 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p> <p>※ 권역의 센터는 건축물 등록 시 대부분 근린생활시설, 소득기반시설 중 저온저장고는 창고시설로 등록됨 <u>(센터의 규모가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저온저장고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인 경우 2급 방화관리자 선임 필수)</u></p>

#농산어촌 체험관광 보험 가입

이제 권역에 고객맞이 준비가 다 되었다. 그런데 뭔가 아쉬운 것이 있는 듯했다.

어느 날 예약 전화를 받는데 "체험하러 오신 손님이나 숙박하신 고객 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하나?"고 물어보신다.

희망택은 아차, 싶었다. 체험과 관련한 보험을 가입하는 걸 깜빡 잊었다. 그리고 보니 또 있다. 센터에 공동식당과 숙박시설을 공중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을 받아야 한다. 희망택은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체험보험 관련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 한국농어촌공사 도농교류센터에서 '농산어촌체험관광보험'을 200개 마을에 지원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원 대상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된 마을로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시행지침'상의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마을로 한정되어 있다고 했다. 이걸, 어째? 아직 농촌마을(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한국농어촌공사 도농교류센터에서

연중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 없이 자부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농촌마을 권역도 지원대상이 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랄 뿐이다.

농산어촌 체험관광 보험지원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지정받은 마을로 한정해서 한다고 하니, 농촌마을 권역이 지원 대상이 되는 그날 바로 지원 신청을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선 하루빨리 사업자 지정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다. 보험지원도 지원이거니와 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도 지정을 받아야 한다.

농산어촌 체험관광보험

○ 농산어촌 체험관광 보험이란?

- 방문객이 체험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보상종류	보상내용
행사 및 시설관련 방문객 피해보상	체험행사 운영 및 행사시설 관리 중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방문객이 불의의 피해를 입은 경우
구내 치료비 보상	피보험자가 운영하는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방문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과실에 관계없이 치료비 보상
생산물 배상	피보험자가 제조/판매한 음식물로 인해 병이 난 경우 보상

○ 보험료(보험자가 제공하는 체험프로그램에 위험한 레포즈를 제외한 경우)

항 목	보상한도액	자기 부담금	방문객수			비 고
			5천명이하	5천~1만	1만~5만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대인 1인당 3천만 1사고당 1억 연간한도 1억 대물 1사고당 1천만 연간한도 1억	10만	401,000	541,000	662,000	기본가입
구내치료비담보	1인당 1백만 1사고당 3백만	-	167,000	225,000	275,000	선택
생산물 책임보험	1인당 3천만 1사고당 1억 중보상한도 1억	30만	174,000	234,000	286,000	선택

※ 보험료는 실적에 따라 해마다 변경가능

※ 위험한 레포즈란? 래프팅, 나룻배타기, 스노쿨링, 서바이벌게임, 눈썰매타기, 승마, 오리엔티어링, 스케이트 타기, 얼음축구, 인공암벽타기, 물썰매타기, 활쏘기, 뗏목타기, 산악오토바이(4륜), 수영장 등

○ 문의 : 031-420-3570 한국농어촌공사 농산업도농교류지원본부 농산어촌체험관광보험 담당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혜택

○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법 제8조)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마을회관, 체험관, 폐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 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중위생법」에서의 숙박업
 - 공중위생영업 :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 숙박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 기타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에 적용 제외되는 대상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2조제1항

- ▶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
- ▶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항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 적용배제 대상 기준

- 연면적 5,000m² 이하인 폐교를 연면적 1,000m² 이하의 숙박서비스 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 연면적이 합쳐서 2,000m² 이하인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 등의 마을공동시설을 각 시설별 500m² 이하의 숙박서비스 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 ※ 단, 총 숙박서비스시설 연면적의 합이 1,500m² 이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법 제9조)

-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적용배제 대상 기준
 - 3,000m² 이하의 실외승마장, 1,500m² 이하의 실내승마장

○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2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에서의 영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 수입·운반·판매하는 업

「식품위생법」 특례 적용 영업시설기준

- ▶ 음식 및 즉석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판매·가공하고,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어
- ▶ 음식 및 즉석식품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세척하는 시설을 갖추어
- ▶ 음식 및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장소는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할 것
- ▶ 수도물 또는 「먹는물 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경우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장·군수 등은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필요한 영업시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소득법인 결산은 법인총회에서 보고

센터에 고객들이 오기 시작했고, 소득법인도 사업을 시작했다. 조금씩 희망권역에 돈이 모이기 시작했다.

희망대는 나름대로 회계장부를 만들고, 한번 방문한 고객을 다시 희망권역을 찾게 하기 위해 고객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권역 소식을 메일로 전하고, 문자메시지로 안부를 묻곤 했다.

그러는 가운데 희망대는 틈틈이 주민들에게 친절교육도 시키고, 월별로 결산을 하고 추진위원회와 주민들에게 회의를 통해 보고를 했다.

권역 시설물을 인계받고 권역에서 운영한지 어느덧 1년의 세월이 흘렀다. 연말 결산을 해야 했다. 먼저 소득법인이 결산을 하고 협약서에 명시된 보조금의 2%를 권역에 권역기금으로 납부했다. 다행히 소득사업이 법인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수익이 꽤 많이 발생했다.

소득법인의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권역 법인의 결산을 하고 법인총회를 통해 결산결과를 보고했다. 물론 법인의 결산은 세무사사무소에서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했으며, 외부인을 포함한 회계감사도 받았다.

이익잉여금을 결손보존을 위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정적립금과, 주주총회를 통해 처분이 가능한 임의 적립금으로 구분하여 적립하였다. 1년 동안 경영한 결과는 주민(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정도의 금액은 적립되지 않았기에 배당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희망권역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기로 하면서 후일을 기약했다. 지금 배당을 하면 푼돈 정도 밖에 되지 않기에 첫해는 공부한 셈 치기로 한 것이다.

적립되는 기금이 늘어날수록 주민들의 자부심과 자신감은 더해갔다. 그리고 주민들은 기금을 새로운 사업과 뜻 깊은 일에 쓰고 싶은 욕심들도 생기는 듯했다.

5. 사무장의 이름으로!

희망택은 권역 사무장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나 생소했다. 과연 사무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과연 사무장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무척 궁금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침(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매뉴얼)에 나와 있는 사무장은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어야 할 것 같았다. 희망택은 과연 내가 저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다.

권역 사무장제도의 목적은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개발사업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권역 운영을 통한 권역의 지속적인 역량강화와 권역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전담인력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했다. 그래서 사업비 사무장 활동비도 지원한다.

희망택은 이제 사무장 활동비는 급여의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무장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 월급을 받고 그만큼 일을 하는 그런 월급쟁이는 아니었다.

‘내가 가진 재능으로 권역에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이 일을 해야만이 사무장인 나는 보람을 갖고, 주민들도 나를 머슴이나 심부름꾼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희망택이 생각하는 사무장이란 주민들이 권역을 스스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 각자의 특성을 파악해 알맞은 역할을 분담하고,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리더이며, 마을과 마을, 주민과 주민, 주민과 기관을 연결하는 코디네이터이다. 또한 사무장은 권역을 경영하는 실무자이기도 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사무장이란 직책은 모든 걸 책임을 지거나 결정하고, 또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하는 자리는 아니다. 희망택은 사무장의 가장 큰 역할은 주민들의 각자 역할을 찾아주는 거라고 생각했다.

희망택의 머리에 떠오르는 일이 있다. 선진지 견학을 간 어느 권역에서는 사무장님이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셨다. 손님맞이도, 청소도, 세탁도, 심지어 체험진행까지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정말 안타까웠다.

사무장도 사람이다. 사무장이 아프거나 개인적인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후계 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희망권역에 희망의 무지개가 뜨려면 다양한 분야의 운영자를 가능하면 많이 육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했다. 권역 리더들과 주민의 인식을 바꾸고 참여를 끌어내는 것은 사무장의 역할 중 큰 몫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다.

희망택은 사무장이란 이름으로 권역 일을 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숭한 벽에 부딪히고 좌절도 했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는 일이고 해볼 만한 일임에는 틀림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하늘은 이겨낼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준다고 한다. 희망택은 지금 조금 힘들긴 하지만, 아직은 그 정도는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전 수 년 동안 단련된 희망택의 자만이 아니라 자신감이었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른 채 천방지축 날뛰던 희망택이 이제 어엿한 중견 사무장으로 불릴 수 있는 건 온전히 교육 덕분이었다. 사무장 교육을 초급, 중급, 고급과정과 단계별 리더교육, 농식품부 주관의 워크숍과 도 주관 워크숍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다.

희망택은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것저것 배우러 다닌 덕분에 체험 지도사, 문화 해설사, 컴퓨터 활용능력과 같은 자격증도 여러 개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내가 생각해도 참 많이 컸다. 이젠 나도 가끔 강의라고 하기에는 부끄럽지만, 나의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기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나의 삶이 참 많이 변화 발전했다. 그래도 여기서 자만해서도 안 될 것이다. 개구리 올챙이 적 모른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겠다.’

물론 이렇게 다닐 수 있었던 건 희망택을 믿고 응원해 주는 사랑하는 가족 때문이기도 했다. 가끔은 엄마의 부재에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마나님의 출타가 그리 곱지만은 않았을 남편, 믿고 참아준 내 가족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갈 수 있는 전국의 사무장님들이 있어 나는 오늘도 행복을 꿈꾸고 희망을 꿈꾼다.

소위 사무장계에서 잘 나가는 사무장님들을 보면 대부분이 권역에 미쳐 있다. 권역으로서는 열정적이고 부지런한 사무장을 있어 좋다. 그러나 권역만 좋겠는가? 그렇게 미쳐있는 사무장은 사실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인생에 가장 멋진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일과 함께 능력자로 키워지고 있으니 말이다. 희망택은 지금도 소리치고 싶다. ‘우리 다 같이 농촌에 미

쳐보자'고!!!

자다가도 불러내는 방문객 덕분에 온전히 잠에서 깨지도 못한 채 슬리퍼에 추리닝 차림으로 센터를 나와야 할 때도, 진상을 부리는 고객들에게 웃어야 할 때도 있었다. 희망택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힘도 들고 짜증이 나기도 했다. 그래도 희망택은 사무장이란 이 마력(魔力)적인 역할을 아직은 버리고 싶지 않았다. 아직 희망권역에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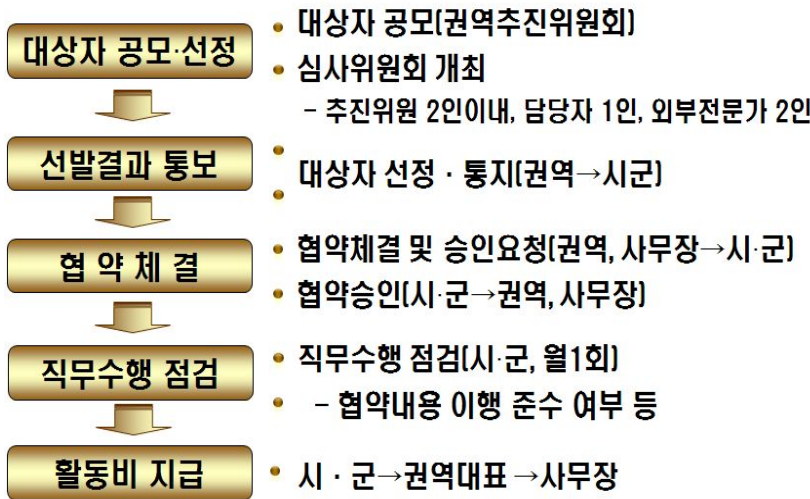
'이 희망권역이 진짜 희망을 되찾는 날, 내 인생에도 희망이 깃들 것이란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건 나만의 환상일까?'

희망택은 아직은 우리 농촌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자신의 삶에도 희망을 심을 수 있는 열정과 힘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다.

사무장, 어정쩡한 자세로 한 발만 걸쳐있으면 큰 코 다칠 수 있다. 제대로 미쳐라~!

- 지원대상 : 권역 사무장을 운영중인 권역
- 지원규모
 - 1인당 월 120만원 범위내(국고 70%, 지방비 30%)
 - 추진위원회, 사무장 간 협약을 통해 결정
 - 120만원 초과 지급 가능하나 최대 국고 지원금 84만원
- 지원기간 : 사업시행기간(최대 5년)
- 지원요건
 -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으며, 농촌지역개발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추진의지가 강한 자
 - 자격요건
 - 채용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자
 - 상근직으로 가능하며,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자
 - 현지에 거주하며, 주민과 원만한 관계 유지가 가능한 자
 -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농촌지역개발에 의지가 강한 자
 - ※ 다만, 권역추진위원회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영농은 겸직 가능, 권역 대표, 소득법인 대표의 직계비속인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선정 및 추진절차



○ 주요임무

- 권역 추진위원회(또는 법인)의 관련 행정업무 지원
 - 법인결성 관련 등 권역 공동 추진업무
 - 추진위원회 관련 각종 회의관련 업무
 - 입출금관리, 권역결산 등 회계업무 전반
- 주민공동 소득사업 관련 업무 지원
 - 자부담, 운영관리방안, 생산품 홍보 관련업무
 - 권역기금 출연 관련업무 등
- 지역역량강화 관련 업무 전반 지원
 - 교육, 견학, 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 컨설팅, 정보화 등

6. 희망택이 밝히는 '권역사업의 모든 것'

"도대체가? 권역사업이 먼저야, 가족이 먼저야?"

"아이고,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를 물어보소."

가끔 가족들은 희망택에게 묻는다. 가족과 권역 중 희망택에게 더 소중한 게 뭐냐고.....글썸다.

'가족은 챙기지 않고 너무 권역사업에만 매달렸나?'

살짝 뒤돌아보기도 하지만, 가족은 가족이기에 더 없이 소중하고, 권역은 권역대로 소중하다. 지금으로선 희망택이 가족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듯하다. 그래도 희망택은 알고 있다. 내게 가족은 편안한 휴식처요, 권역은 살아가는 에너지라고...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희망택은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정녕 몰랐다. 웃고 떠든 사이 벌써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버린 것 같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지.

'子曰 學而時習之이면 不亦悅乎아, 有朋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人不知而不慍이면 不亦君子乎아'라...

'공자가 말하길 배우고 때맞춰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성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우리 사무장의 인생과 참 닮아 있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희망택이 매일 되새기게 되는 글귀다. 전국 농촌마을의 사무장님 모두가 희망택에게는 벗이다.

'그 벗님들과 함께 하니 두려움도 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다.'

희망권역도 사무장인 희망택도 영원히 막내일 것 같았는데, 이제 희망권역으로 후행권역에서 선진지 견학을 온다. 희망택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있다는 만족감을 조금은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사업이 끝나고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 문득 후행권역들의 귀감이 될 만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후행 권역사업과 사무장에게 좀더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해야 해. 내가 익힌 게 다 권역사업의 자산이잖아. 처음 시작하면서 다들 얼마나 허둥지둥하겠어. 길잡이가 될만한 게 필요해.'

희망택은 권역사업의 시작과 끝에서 추진위원회가 해야 하는 일, 사무장

이 해야 하는 일들을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자신처럼 멋모르고 뛰어난 사무장님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단계별 추진위원회 및 사무장 업무

구 분	추진위원회	사무장
예비 계획 수립 (사업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향 신청(포괄보조5개년계획) ○ 추진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별 다수의 인원으로 구성 ○ 예비계획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계획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 - 마을별 자원조사표 작성 및 지역 개발사업 실적·계획현황 파악 ○ 마을별 설명회 및 주민회의 개최 ○ 지침,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 사업 관련 기준 숙지 ○ 권역 운영을 위한 권역자체경비 조성 ○ 선진지 견학 및 교육 ○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과 관련한 부지확보 등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향 신청 지원 ○ 회의안건 및 회의자료 작성 ○ 회의 소집 및 연락, 회의록 작성 ○ 컨설팅 업체 및 전문가 정보 제공 ○ 권역전담 자문가 정보제공 및 섭외 ○ 마을 안내 및 정보제공 ○ 사업관련 기준 숙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 매뉴얼, 가이드라인 ○ 경비사용 내역 작성 및 결과보고 ○ 견학 및 교육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학지 및 강사 섭외 등 ○ 예정부지확보를 위한 지원 ○ 사업성검토 신청 지원
기본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조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지원 및 협조를 통한 권역 잠재자원 발굴 □ 기본구상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인 발전이 가능한 사업구상 및 주민 합의 ○ 기본구상(안)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 ○ 소득사업 참여자 모집 □ 세부사업계획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 마을간, 주민 간 갈등 해결 노력 ○ 부지제공 및 자부담 해결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매각 동의서 징구 - 소득사업 출자 협약서 징구 ○ 자발적인 주민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주도형 상향식 사업의 이해 - 지침, 매뉴얼, 가이드라인 주민 전달 교육 - 선행권역 견학 및 선진사례 교육 - 인력육성(리더, 운영자, 경영자, 프로그램 참여자, 시설운영관리자 등) ○ 공청회 참석 ○ 공식적인 사무장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별 설명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 특성파악 등 ○ 마을 안내 등 조사지원 및 협조 ○ 기본계획 수립관련 회의 및 토론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록 작성 및 결과보고 ○ 주민회의 소집, 연락, 회의록작성 ○ 견학 및 교육 준비 ○ 사업별 인허가 절차 등 사업추진 사전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자료 및 시행사례 알아보기 - 프로그램 운영자 및 시설 운영자 육성 유도 ○ 공청회 참여 ○ 지역발전협의회 참여 ○ 소득사업 조사 ○ 사업관련 기준 숙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 ○ 교육참여 ○ 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내역 검토

구 분	추진위원회 업무	사무장 업무
시행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설계(안)에 대한 의견제시 및 주민합의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 - 공간계획 및 동선의 적정성 ○ 설계 명예감리 ○ 마을간 갈등해결 노력 ○ 부지확보 및 주민의견 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에서 우선 확보 ○ 소득기반시설 자부담 확보 및 법인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설립 절차 등 검토 ○ 역량강화사업 시행업체 선정에 참여 ○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조사반 지원 ○ 설계 체크리스트 작성 및 명예감리 ○ 회의소집, 연락, 회의록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 전달 ○ 부지확보 지원 ○ 소득 및 체험관광 사업 추진 사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권역 사례 알아보기 - 법인설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형태비교, 출자범위 및 방법 ○ 역량강화 응찰업체 비교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내용 평가위원 사전 전달
사업 시행	<p>가. 시설(H/W)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수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년차별 시행계획서 검토 □ 착수 및 시공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공정별 공정계획서 검토 ○ 주민 명예감독원 참여 ○ 권역 자치규약 제정 ○ 운영주체별 협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주체(소득법인, 체험법인, 마을)· 권역· 지자체 - 권역기금 납부방법(납부율, 시기, 기간) - 결산 및 감사 방법 - 주민보고 시기 및 방법 ○ 사업추진상황 주민보고 □ 준공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예비준공검사 참여 ○ 시설물 소유권 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 제조업허가(식품) 등 인허가 준비 - 소득사업 시설물 안전장치 ○ 소득사업 자부담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부담 또는 잔액 반환 ○ 시설물 인수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인수검토위원회 구성 ○ 시설물 운영관리자 육성 ○ 권역 경영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년차별 시행계획서 및 공정계획서 검토· 확인 ○ 명예감독 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참고 - 시공 단계별 이용자 입장 고려 ○ 자치규약 초안 작성 ○ 협약서(안)작성 ○ 주민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소집, 연락, 회의록 작성 ○ 시설물 운영관리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조직 구성(안) 작성

구 분	추진위원회 업무	사무장 업무
사업 시행	<p>나. 역량강화사업</p> <p>□ 착수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계획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일정, 수행인력, 세부내역 등 ○ 착수보고회 개최 <p>□ 분야별 시행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및 일정협의 - 교육 참여 독려 ○ 국내·외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결정 및 자부담(국외) 확보 - 사전교육 ○ 홍보·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품 점검 ○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방법, 인력의 적정성 검토 - 성과품 적정성 검토 ○ 정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장비 설치장소 및 수량 결정 - 전산장비 사양 검토 - 홈페이지 디자인 및 기능 검토 - 통관업 신고 절차 등 검토 <p>□ 준공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권 및 프로그램 사용권 인수인계 ○ 품질관리를 통한 하자보수 ○ 시범운영 등 기술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계획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년차별, 분야별 세부검토 ○ 역량강화 컨설팅 업체, 사업담당자와 사업추진 업무협의 ○ 분야별 성과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보수 요구 ○ 시범운영 등 기술이전사항 확인 ○ 보고서 참석 및 주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강화사업 추진상황 주민보고 ○ 최종 성과품 검수 참여 ○ 권역운영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법인(운영위원회) 정관 및 운영조직 초안 작성
권역 운영 및 유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법인 또는 운영위원회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 운영관리 조직 구성 - 총무분과, 체험분과 등으로 구분 · 총무분과는 행정팀, 시설팀으로 · 체험분과는 청소팀, 체험팀, 음식팀 등 권역운영에 맞게 구분 ○ 시설물 유지관리 조직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별 관리책임자 지정(정, 부) - 시설물 관리(청소, 파손복구, 비품 목록 관리) ○ 권역자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내역 작성·관리 · 종류별 수량, 비치장소, 운영관리 책임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운영위원회)설립 행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참여 공고 및 회의 소집 ○ 시설물 유지관리 조직(안) 작성 ○ 권역 자산관리대장 작성·관리

구 분	추진위원회 업무	사무장 업무
<p style="text-align: center;">권역 운영 및 유지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품 목록 작성·관리 - 침구류 세탁 및 관리 - 체험도구 및 주방기기의 세척 및 위생관리, 정리정돈 - 전산소모품, 사무용품, 포장재 기타 등 ○ 고객관리 ○ 체험·숙박 운영 ○ 단체객 식당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약관리 및 메뉴개발 ○ 권역기금조성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법인, 체험법인(마을)과 체결한 협약에 의한 기금 조성 - 각 법인별 결산 전 납부이행 - 권역기금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사업투자, 주민복지증진 등 공동체 활성화, 장학금지급, 불우 이웃기부, 주민역량강화(교육, 견학) 등 ○ 회계관리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주체별 회계장부 기록 - 결산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주체별 결산 후 권역법인 보고 · 권역법인 결산 후 주민보고 · 분기별(반기별) 결산, 년도말 결산시 외부회계감사 실시 ○ 홈페이지 관리 ○ 신규아이템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품 관리사항 확인 ○ 고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리스트 작성·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S문자서비스, 메일링서비스 등 - 예약 및 입퇴실 관리 - 사후관리 ○ 체험·숙박·식당 운영사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약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가 체험연계 - 청소팀, 음식팀, 체험팀 운영 ○ 권역기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조성내역 작성 ○ 회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장부 기록 - 운영주체별 결산 ○ 홈페이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인화면 사진 업데이트 및 게시글 관리 - 장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연결 및 자체상품 판매 ○ 운영자 육성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에게 역할 부여 ○ 신규아이템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사업 추진

7. 마무리 그리고 새로운 시작

'30대에 사무장 입문했는데.....'

희망택은 이제는 마흔하고도 몇 개의 손가락을 더 꼽아야 하는 40대 중반을 달려가는 나이가 되었다.

권역 사업이 마무리 되고 희망권역에도 안정이 찾아왔다. 풍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은행이자 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배당을 할 만큼 자생력도 갖추어가고 있다. 또 주민 스스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함께 고민도 하고 있다.

잘 사는 것도 희망권역의 목표중의 하나지만, 꼭 잘 사는 것만이 목표는 아니다. 해서, 권역은 각 부락(자연마을)마다 그 마을에 어울리는 주제를 선정해서 거의 매주 토론이나 행사(거창한 행사가 아니다. 주제와 어울리는 마을 잔치도, 주민 발표회도, 또 때로는 교육도 한다)를 한다. 이제 희망권역 주민들의 얼굴에는 진짜 희망이 보였다. 경제적으로 부유해 진다는 희망을 넘어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배움에 목말라 하는 어른들에게 교육을 받게 하였다. 견학을 가고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면서 그분들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듯 했다. 격변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어려운 가정형편에 학교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겨우 국민학교(초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태반인 우리 어르신들은 그들이 유년시절 해보지 못했던 꿈들을 이제야 조금씩 실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지금 희망권역은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다. 역할 분담도 아주 잘 되어 있다. 각 팀마다 팀장의 책임하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희망권역과 사람들에게 많은 변화가 왔듯이, 우리의 희망택에게도 커다란 변화가 왔고 다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있었다.

"앞으로는 사무장도 스카웃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은 활동비 120만원을 받고 있지만, 개인의 역량에 따라 평가받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

농어촌공사의 손차장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사무장들에게 말씀하셨다. 희망택은 그 말을 들을 당시 그냥 우스개 소리로 흘려들었는데 생각하니 조만간 그런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았다.

얼마 전 뜻밖에도 희망택에게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다. 희망권역과 이웃한 동네에서도 권역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인 우리의 희망택이 가진 노하우를 사고 싶다는 제의가 들어온 것이다. 희망택 지금 행복한 고민 중이다. 이런 제의를 받고 고민이 안 된다면 그건 거짓말

일 것이다. 처음엔 농담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분들은 진지했던 것이다.

"어이 사무장 이제 보조 사무장 키울 때 안됐는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니면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인지, 고민이 깊어가던 그 무렵 위원장님께서 보조사무장 채용건을 안건으로 올리라 하셨다. 그리고 추천도 하셨다.

그래서 지금은 머나먼 타국 땅에서 우리 동네 노총각과 결혼한 새댁을 보조 사무장으로 앉히고 일을 가르치고 있던 중이다. 새댁은 그 나라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영어에도 능통한 인재였다. 아직은 말이 조금 어눌하기는 하지만 말하고 쓰고 읽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성격도 활달하고 애교도 넘치는 지라 권역 어르신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당장 희망댁이 출근하지 않아도 희망권역은 문제될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사람이란 참 종잡을 데가 없어 희망댁은 막상 자신이 없어도 별 탈이 없다 생각하니 섭섭한 기분이 드는 것이었다.

'몇 년 동안 권역 외엔 내 인생이 없다보니 이런 마음이 드나보다. 희망권역이 체계를 갖추고 자립한다는 것은, 거기에 내가 일조를 한 것 아닌가.'

우리의 희망댁,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다.

희망댁은 권역 전반의 것들을 정리하며 권역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고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희망을 심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의 희망댁은.

2장

희망택의 비법서 - '고참 사무장 되기'

- 비법 1. 회의는 이렇게
- 비법 2. 법인설립의 하나부터 열까지
- 비법 3. 서비스? 고객이 '까무러치게'
- 비법 4. 들어나 봤나, 완전무결 회계처리
- 비법 5. 똑소리 나는 시설물 관리
- 비법 6. 죽었다 깨어나도 알아야 할 것들(Tip)
뒷이야기- 무조건 주민은 내 편!

나, 희망택의 업무노트를 펼쳐 보이는 것은 쑥스러운 일이다. 거참, 스스로 업무의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이다. 각 권역마다 처해진 실정이 있지만 권역사업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권역사업을 하면서 내가 짧게 짧게 기록했던 것을 전국 권역의 사무장 누구나 알 수 있게, 핵심사항만 다시 정리해 보았다. 이름하여 '희망택의 비법서 고참 사무장되기'다.

후행 권역의 사무장님들은 나와 같은 무지가 없기를 바라며, 혹은 실수를 줄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 희망택의 사무장비법을 적극 공개한다. 빨간 볼펜 들고 줄 그어가면서 또는 표시해가면서 활용하길 바란다. 슬쩍 보고 책상 서랍안에서 잠재우려면 이 책을 아예 펼치지 말길.

비법1. 회의는 이렇게...

회의... 아이고, 솔직히 입에서는 곡소리부터 먼저 나올 것 같다. 사무장이란 이름으로 처음 회의를 준비하던 때가 떠오른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던 어리버리 회의준비였다. 우왕좌왕이란 말이 이때처럼 실감날 수가 없었다.

권역 회의에서 사무장은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그러나 막상 회의가 시작되면 사무장이란 직책의 발언권은 참으로 미미하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막간의 시간을 활용해 권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다음 회의에 논의할 새로운 안건을 도출하기도 한다.

회의는 준비단계, 진행단계, 결과정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회의 진행단계

단 계	업 무	비 고
준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발의(정기, 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하게 결정해야 할 안건이 있을 경우 회의 발의 건의 ○ 회의 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위원회의 : 추진위원들에게 회의 알림 및 참석 요청 - 주민회의 : 마을별 방송 요청(이장 등) - 지자체 담당자 및 공사감독 : 회의개최 알림 ○ 회의자료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건, 참석자 명단 등 ○ 회의장소 준비(책상, 의자 등) ○ 다과 및 녹음기 준비 	
진행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녹취 ○ 사진촬영 ○ 주요내용 메모 	
결과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결과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취록 작성 ○ 결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위원회 임원 결재 - 지자체 회의결과 송부 ○ 비용집행 내역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식, 문구 구입 등 영수증 및 회계장부 정리 	

#회의 공문 발송은 어떻게???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시다."

우리는 추진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회의 시간대를 일과를 마친 저녁 시간으로 정하였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의를 정례화하고, 회의 참석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 회의 시간을 가능하면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주민회의도 가능하면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저녁시간에 하였다.

"회의도 회의지만 금강산도 식후경, 사람이 모이면 먹을 게 있어야지요. 아, 사람 나고 회의 났어요."

가끔은 부녀회원님들이 저녁식사 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 가끔은 어르신들께서 찢 감자, 찢 옥수수, 호박죽과 같은 간식도 공수해 주셨다.

권역 살림을 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고맙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우리 권역에서는 회의도 물론이지만, 가능하면 대부분의 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문서화 하려고 노력했다. 일례로 회의를 개최할 때도 개최 계획 공문을 열심군과 위탁 시행사에게 발송하고, 참여를 요청하고, 결과도 공문으로 보고하고 있다.

사업이 준공되고 나서도 열심군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그렇게 하고 있다. 열심군에도 후행권역들이 몇 있다. 그래서인지 준공 후에도 꾸준히 희망권역에 관심을 갖고 응원을 해주고 있어 힘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뒤에서 믿어주고 응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열심군의 응원은 희망권역을 춤추게, 아니 신바람나게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공문은 추진위원회 내부결재용 문서와, 외부발신용 문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작성하면 된다.

회의 개최 공문 양식- 내부용

희망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우 / 000 - 000 / 전화 (000) 000 - 0000 / FAX 000) 000 - 0000
 주소 : 〇〇도 〇〇군 〇〇동 〇〇번지

문서번호 : 희망 2011-00

시행일자 : 2011. . .

받 음 : 내부결재

참 조

보존기간	3 년	위 원 장	
공개여부	공 개		
부위원장			
기안자	사무장 〇〇〇	협 조	총 무

제 목 제 00회 희망권역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제 00회 희망권역 추진위원회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겠습니다.

가. 일시·장소 :

나. 참석대상 :

다. 주요안건

○

○

라. 소요예산 :

○ 세부산출내역 :

○ 집행방법 : 권역추진위원회 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 집행 끝

회의 개최 공문 양식- 외부용

희망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우 / 000 - 000 / 전화 (000) 000 - 0000 / FAX 000) 000 - 0000
 주 소 : 〇〇도 〇〇군 〇〇동 〇〇번지

문서번호 : 희망 2011-00
 시행일자 : 2011. . .

받 음 : 열심군수
 참 조 : 지역개발과장

선 략			지	
	일자		시	
접	번호		결	
수			재	
처리과			공	
담당자			람	

제 목 제 00회 희망권역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알림

제 00회 희망권역 추진위원회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일시·장소 :
- 나. 참석대상 :
- 다. 주요안건
-
-

희망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인)

#회의자료와 회의록 작성

회의, 회의.... 아이고 사무장의 업무 초기에 가장 많이 하는 것도 회의요, 가장 어려운 것도 회의 준비였다. 처음에는 회의준비랍시고 해놓고 회의때마다 어찌나 긴장이 되던지 혹시 빠뜨린 건 없는지, 제대로 했는지... 생각하면 아득한 옛날이다.

정기회의는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가끔 시급을 다투는 긴박한 문제로 인해 골치가 아플 때가 있다. 그럴 땐 할 수 없다. 머리는 놔두고 몸을 움직여야 한다. 번갯불에 콩 구워먹는다 생각하고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 다녀야 한다. 결재라인에 계신 부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이 가까운 곳에 계시면 그건 행운이다. 출타 하셨거나 멀리 계실 때는 정말이지 죽을 맛이다. 그래도 나는 하고야 만다. 나, 희망택은 의지의 대한민국 아줌마니까...

공문 결재도 끝나고 열심군과 위탁시 행사에 팩스로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연락을 드리고 나면 끝이나 하면 그건 또 아니다. 또 다른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부터 회의 자료에 매달려야 한다. 회의 안전에 따라 대략적인 안전발의 경위와 안전과 관련된 추진내용 등을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하시는 인원 수 만큼 자료를 출력하면 일단 급한 불은 끈 것이다.

이렇게 회의 자료를 작성해 놓고 보니 그럴 듯 해 보인다. 회의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문서화 하니 힘도 들고 너무 형식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 권역의 체계를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는 이정도의 형식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회의실 입구에 회의자료, 참석자 명단 서명지와 펜을 준비해 놓고, 회의장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간단한 음료도 준비한다. 가끔 중요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 있을 때는 의사봉을 준비해 둔다.

우리 희망권역에서는 회의준비도 사무장이 혼자 하지 않는다. 물론 회의 개최 방침을 받는다거나 회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사무장인 내가 하지만, 그 외 다과준비나 회의장 준비는 권역추진위원회의 '젊은 피' 총무파트에서 맡아서 한다.

우리 희망권역은 비교적 역할분담이 잘 되어 있는 편이다. 분명 사무장을 좀 더 폭넓게 활용(?) 하시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다. 나만의 착각이라도 좋다. 나의 가치는 내 스스로가 높여 가는 것이니 말이다. 내

스스로가 그저 누군가 시키는 일만 하는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나를 진정 인정해 주겠는가? 스스로 가치를 높이고 그 가치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다.

회의라는 것이 시작할 때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렇다고 회의가 끝나면 일이 없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이다.

회의가 끝나면 회의결과를 정리하고 다시 정리된 결과를 추진위원회, 군 담당자와 공사감독에게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동시에 주민들에게도 마을게시판, 소식지를 통해 결과를 알린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야지만 진정 회의가 끝난 것이다.

추진위원회 회의자료 양식

제 00회 희망권역 추진위원회 회의자료

1.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1. . . 00:00~, 희망권역 센터 회의실
- 참석대상 : 00명
 - 희망권역 추진위원 00인, 사무장, 사업담당자 0인

2. 주요안건

- 00시설 설비도입 및 설계(안) 검토
 - 00시설 추진현황
 -
 -
 - 00시설 필수설비 현황
 -
 -
 -
-
-

- 덧붙임 1. 업체별 설비 세부내역서
2. 00시설 설계 평면도(안) 및 투시도(안)
3. ~~~ ~~~~~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작성 양식

제 00회 희망권역 추진위원회 회의결과

1.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1. . . 00:00~, 희망권역 센터 회의실
- 참석자 : 00명
 - 희망권역 추진위원 00인, 사무장, 사업담당자 0인

2. 주요안건

- 00시설 설비도입 및 설계(안) 검토
-

3. 주요내용

- 00시설 필수설비의 업체별 장단점 비교
- 00시설 설계(안)에 대한 의견

4. 회의결과

- 00시설 00설비 제품 확정
 - △△△ 제품
-

5. 조치사항

- 사업시행자에 추진위원회 결정내용 알림
-

6. 향후계획

- 00시설 설비도입 및 설계(안) 검토
-

덧붙임 : 회의록

회의록 양식

회 의 록

□ 일시장소 :

안 건 명	
토론내용	
발언자	발언내용(요약)
의결사항	

비법2. 법인설립의 하나부터 열까지

법인, 법인이 대체 뭐냐고?

법인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어떤 게 더 권역에 유리한 지 그 차이를 알지 못했다. 자료를 찾고 공부했다. 학교 때도 설렁설렁하던 이놈의 공부를 권역사업을 하면서는 파고 또 파야 했다. 그러니 결론이 나긴 났다.

우리 희망권역에는 3개의 법인이 있다. 처음에는 3개의 법인 모두 영농조합 법인이냐 농업회사 법인이냐를 놓고 한참을 고민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을 비교하면서 우리 희망권역에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고자 자료를 읽고 또 읽었다.

우리는 권역사업의 본질에 더 큰 의의를 두고 영농조합 법인으로 결정했다. 사실상 두 가지 형태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권역 주민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연간 1인당 1,200만원의 배당소득이 감면되는 영농조합 법인이 조합원들에게는 더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권역 내에 설립되는 어떤 형태의 법인이든 그 법인을 설립하기 까지 권역 추진위원회와 사무장의 역할은 있다. 다만 해당법인이 권역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권역 전체 운영법인의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사무장의 역할이 매우 크지만, 개별 소득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 나름대로의 조직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무 지원을 하는 수준으로 관여하게 된다.

소득법인이 별도의 조직이기는 하지만 권역 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권역운영법인이 기업의 본사조직이라면 소득법인은 그 기업의 지사조직으로 보면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은 권역법인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법인 설립을 위한 험난한 여정을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혹시 여행도중 뇌에 쥐가 난다거나 쏠림현상이 나타나더라도 끝까지 잘 참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법인설립의 도사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일단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권역 가구 중 10가구 이상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솔직히 소득사업이야 이미 예비계획단계부터 준비를

해 온 터라 조합원이나 출자에 그리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권역 전체 운영법인의 경우는 가능하면 권역 전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 힘든 일이 참 많았다. 물론 시간도 많이 들 수밖에 없었고... 권역운영법인 설립 공고를 마을마다 붙이고, 마을별로 돌아다니며 설명회를 다니며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법인 설립 과정

법인설립 과정을 보면 준비단계와 설립단계, 운영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법인 설립은 권역 위원장이나 사무장이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전문적인 법무사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전문가를 찾아내는 것도 사무장의 능력이다. 수소문을 하든 발품을 팔든 지역실정을 잘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라.

법인 설립 단계

구 분	업 무	비 고
준비단계 (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설립준비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형태, 출자 방법, 조합원의 자격, 의결권 등 ○ 법인설립 공고 ○ 출자자 모집 ○ 법무사 알아보기 ○ 정관초안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권역 법인의 정관 벤치마킹 	
설립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립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승인, 임원선출, 사업계획 승인 - 의사록 작성 ○ 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록 작성 ○ 설립사무 인계(이사회) ○ 출자의 불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증서 발행 ○ 설립등기 신청(법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등기소(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 등기부등본 교부 ○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세무서장 	
운영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 비용 회계처리 - 반기 및 년도말 결산 ○ 세금관련업무(세무사, 회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 년도별 사업계획 ○ 이사회 개최 	

#법인 출자자 모집 공고

출자자 모집 공고를 각 마을회관 게시판과 권역센터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군 홈페이지와 우리권역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그리고 공고문을 복사지에 출력해서 일일이 나눠드리기도 했다.

공고문을 게시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기를 마음졸여가며 기다리고 있을 때 어르신들이 권역 사무실을 찾아주셨다. 어떤 분은 출자신청서 쓰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대신 작성해 달라고도 하셨다. 물론 작성은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경우가 있어도 서명이나 인장날인은 꼭 본인이 하시도록 했다. 걱정이 무색하리 만큼 많은 주민들이 찾아주셨고, 현금출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현물로라도 출자를 하시겠다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의욕들이 대단하셨다.

우리 희망권역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조그마한 텃밭을 운영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센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조그마한 밭을 경작하시던 어르신이 그 밭의 경작권을 권역으로 주겠다고 하며 대신 가진 돈이 없으니 그것을 출자금으로 할 수 없겠냐고 하신다. 위원회 회의에서 마을에서 거래되는 토지임대료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인정해주는 쪽으로 결정이 났다. 당장 현금이 없는 어르신들은 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각종 농산물로 현금을 대신해서 권역사업에 동참하셨다.

솔직히 나는 놀랍기도 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권역 주민들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다. 권역 법인은 권역 주민들의 주머니 싹짓돈을 모아서 시작한다. 주민들이나 운영진 모두가 감회가 남달랐다.

‘주민이 모은 종자돈!’

나는 이 돈을 뺏튀기 기계에라도 넣고 싶었다. 어르신들의 주머니를 조금이라도 불러 드리고 어르신들의 얼굴에 건강하고 행복한 웃음이 번지는 마을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불끈불끈 들었다. 사명감 아닌 사명감을 불태운 것이다.

법인 설립 출자자 모집 공고 양식

희망권역운영법인 설립 및 출자자 모집 공고

희망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는 권역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권역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희망권역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의결함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력 법인을 설립코자 다음과 같이 출자자를 모집합니다.

1. 법인명 : 희망권역영농조합법인

2. 설립목적

- 권역 주민모두가 주인이 되는 희망권역 만들기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권역 경영기반 마련
-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3. 주요사업(안)

-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
- 농작업의 대행
-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 **도시민 및 마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체험·휴양·관광사업**
-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4. 역할

- 희망권역 전체사업 총괄
- 희망권역 경영

5. 출자금

- 출자금 : 50,000,000원 이상
- 1좌당 금액 : 50,000원
- 1인이 총출자좌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현물출자 가능

6. 신청요령 및 자격요건

- 권역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출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자격요건
 - 희망권역에 주소지를 두고 희망권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
 - 만 20세 이상의 성인
- 신청기한 : '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
- 접수처 및 문의 : 희망권역추진위원회 사무실(☎ 000-000-0000)

#법인 정관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산 넘어 산이었다. 법인 정관이라고? 어려웠다.

출자자를 모집하면서 한편으로는 진짜 열정적인 법무사 찾기와 타 권역의 법인정관 훑치기에 도전했다. 친분이 두터운 타 권역 사무장님과 공사 감독에게 부탁해서 몇 권역의 법인정관을 비교했다. 그런데 정관이 대부분 법인이름이나 권역이름만 다를 뿐 내용은 크게 다른 것이 없었다. 권역마다 특성이 다르고 중점사업이 다를 텐데 왜 그럴까를 한참 고민했다. 그래서 나는 그 정관을 가지고 우리 권역만의 정관을 만들어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정관을 작성하면서 소개받은 법무사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정관이 비슷비슷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한번 승인된 정관을 다시 수정하려면 절차가 꽤나 복잡하단다. 그래서 웬만하면 정관은 큰 틀에서 많은 것을 포함할 수 있도록 두루뭉술하게 작성하고,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에 들어가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주식, 유한)의 정관 예시가 있다.

창립총회일이 얼마 남지 않을 무렵 정관과 세부시행규칙의 초안도 완성되었다. 완성된 초안은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정이 되고 그 수정안이 드디어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공증까지 마쳤다.

#창립총회와 권역 운영법인 등기

‘희망권역 영농조합법인’ 창립총회는 우리 희망권역이 추진위원회 체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법인 체제로 바뀌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운영체제가 바뀐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하나씩 변화해간다는 것은 조금씩 자란다는 뜻이기도 할 것이다. 창립총회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창립총회 이후 새로이 구성된 임원으로 이사회가 개최되고 이사회 회의록도 공증을 받았다.

우리 권역을 책임지고 운영해 나갈 새로운 임원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었다. 이번에 임명된 임원중에는 추진위원회 위원 이외에도 뒤에서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시던 분들도 계신다. 그동안 고생하신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새로 임명된 희망권역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진들이 앞으로 우리 희망권역을 잘 이끌고 나가줄 것을 당부하는 의미로 권역 전체 주민

들을 모시고 조출하지만 행복한 잔치 한마당을 벌였다.

법인 체제로 바뀌니 이것저것 새로 준비해야 할 일도 많아졌다. 법인 직인과 대표직인도 새로 만들었다.

추진위원회의 모든 업무가 권역운영법인으로 이관되었지만, 정식으로 법인등기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여서 주민들이 신청한 출자금을 추진위원회 통장으로 납입하도록 마을마다 이장님께 부탁드려 며칠간 방송도 하고 기한이 다되도록 납입하지 않는 분께는 직접 전화도 드렸다. 출자금을 납부한 주민에게는 출자증서를 교부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법인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법무사에서 등기신청을 하고 3~4일 정도 지나니 드디어 '희망권역영농조합법인' 등기부등본이 우리권역에 전해졌다. 뭐 그리 대단하게 뼈까뻐쩍 한 것도 아니건만, 그냥 종이에 불과하건만 감개가 무량할 따름이었다.

등기부등본을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에 법인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다. 이제 남은 일은 희망권역을 잘 경영하는 일 뿐이다. 누가? 그야 두 말할 것 없이 권역 주민전체가 나서야지요.

법인 이사회 회의록

희망권역 영농조합법인 이사회 회의록

회의일자	20 년 월 일	회의장소	
회의시간	00:00 ~ 00:00(시간)	구 분	정기(), 임시()
출석현황	재적 : 명, 참석 : 명, 불참 : 명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안건(회의내용)	
의결사항	

안건(회의내용)	
의결사항	

20 년 월 일

직책 성명 서명
직책 성명 서명

출자증서 양식

조합원 출자증서

조 합 원 명 :

주민등록번호 :

출 자 좌 수 :

1 좌 금 액 :

납 입 출 자 금 :

출자재산의 표시 : 지번

지목

면적

(품목

수량)

위와 같이 출자금을 틀림없이 납입하고 희망권역 영농조합법인은 이를 영수하였으므로 본 출자증서를 발행합니다.

20 년 월 일

희망권역 영농조합법인 대표 ○ ○ ○

00도 00군 00면 00리 00번지

전화 : 000-000-0000, 팩스 : 000-000-0000

비법3. 서비스, 고객이 까무러치게!

서비스? 촌에 사는 우리와 상관없는 말인 줄 알았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었다.

권역 센터가 완공했다는 소식이 군보와 지역신문에 실리고 준공식 날 자매결연 맺은 기업들과 출향민들을 초대했다. 그 결과 완공과 동시에 하나 둘 고객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추진위원회와 운영진은 우리 권역을 한번 찾은 방문객은 꼭 다시 오고, 심지어는 "야야, 주위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 안달이 나도록 하자."고 농담 아닌 진담을 나누기도 했다.

우리 권역의 고객맞이 방법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차선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한다. 잘 나가는 스타권역도 처음부터 잘하지는 않았을 터이고... 먼저 시작했다고 더 잘하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나는 주민들이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었다.

비록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서비스향상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운영 교육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교육을 꽤 많이 받기는 했지만, 교육을 받는 것과 실제 상황과는 다른 것 같다. 평생을 촌에서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하루아침에 도회지 사람들처럼 사근사근해 질수도 없는 노릇이려니와 촌 생활에 익숙한 어르신들이라 까탈스런 도회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아야 할지...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걱정만 하고 있는다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부딪혀 봐야하지 않겠는가.

#고객맞이 서비스 지침

센터 경영의 첫걸음은 서비스 정신이다. 어느 기업은 '고객감동'을 외쳐댔지만 우리는 '감동을 느낄 새도 없이 까무러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센터 준공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고객맞이 준비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이상과 현실이 다르듯이 교육과 실제상황은 달랐다.

방법을 찾아야 했다. 급식팀 책임을 맡은 팀장님이 도시민을 대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의견에 만장일치를 봤다. 바로 자매결연을 맺은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회사 홈페이지에 주말을 이용한 무료 1박2일 농촌체험 희망자를 모집하는 홍보 배너를 띄웠더니 열다섯 가족 50여명이 신청을 하셨다.

동네잔치는 여러 번 했어도 외부 손님을 공식적으로 접대해본 경험이 없는 주민들로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각 팀별 팀장님들은 그래도 이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다. 소위말해 잘나가는 사람인 것이다. 그래서 인지 정말 열정적이었다.

처음에 막막했던 것과는 달리 비록 약간의 실수와 부족함은 있었지만, 주민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협조로 무사히 행사를 치렀다. 방문객들이 돌아갈 때 우리에게 보였던 행복한 표정과 감사의 말에 우리 주민들은 조금씩 자신감을 가졌다.

‘아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군!’

실전에 강한 것이 또 우리 주민들이었다. 하면 된다는 것을 조금씩 느껴가고 있는 듯 했다.

고객을 만족시키기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도회지에서 정규교육을 받고 온몸에 서비스로 무장한 젊은이들도 까탈스런 고객들을 모두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하물며 우리 농촌에서야 어떻겠는가. 다만 우린 우리 식대로의 만족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나와 우리 주민들이 우리 희망권역을 찾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만족시켰는지 살짝 공개하려고 한다.

고객맞이 일정 진행표

구 분	업 무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 및 숙박팀, 침구류 세탁 참여 주민 모집 - 각 팀별 순번제 구성 - 조장 선출 ○ 체험프로그램 참여농가 모집 - 리스트 작성(순번제 운영) ○ 각 팀별 업무매뉴얼 작성 및 교육
고객맞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약신청서 및 예약대장 작성 - 객실배정 - 단체 식사 여부 및 식사시간, 인원, 메뉴 협의 - 부대시설 이용 여부 확인 및 준비 ○ 고객관리카드 작성 ○ 시설이용요령 설명 - 내·외부 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요령 - 세면도구, 침구류 관련 사항 등 ○ 입·퇴실 관리 ○ 이용료 정산 ○ 개인별 참여대장 및 팀별 주민참여현황표 확인 - 각 팀장이 작성후 사무장 확인 ○ 시설점검 - 퇴실 후 주방, 숙소, 부대이용시설 청소 및 위생상태 점검 - 장기간 미사용 시설은 사용 전 점검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에 대한 감사 메시지 전송 - e-mail, sms문자 ○ 우수고객 특산물 샘플 발송 ○ 축제 등 이벤트 개최 행사 안내 메시지 전송

#주민참여를 적극 끌어내자!

고객맞이, 결코 사무장 혼자서 할 수 없다. 이제 사무장과 주민이 환상적인 콤비 플레이를 보여줘야 하는 일이다. 우리 희망권역은 고객맞이 거의 국가대표급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고 해도.....

도대체 어떻게 하기에 그렇게 자신하냐고요?

우선 고객을 맞이하려면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한다. 그 준비는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더 많은 주민과 함께 해야 진정한 주민참여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 희망권역도 처음부터 주민들 모두가 참여한 건 아니었다. 시행착오도 겪을 만큼 겪었고, 열성인 주민이 있는 반면

뒷집 지고 노려보는 주민들도 있었다. 처음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다 같이 재미있게 잘 살아보자고 하는 일인데 누구는 열심이고 누군 방관자고 또 누군 뒤에서 욕을 한다는 게...

그러나 한 분 한 분 그분들에게 자그마한 역할을 드렸더니, 어느 순간 처음엔 싫은 척 못하시겠다고 하더니, 몇 번을 찾아가 부탁하고 어르신 밖에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추켜세웠더니 그렇게 열심일 수가 없다.

이제 우리 희망권역은 주민 모두가 어떤 일이든 크든 작든 최소한 한가지씩은 권역 일에 함께 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까지 우여곡절도 참 많았지만, 지금은 서운한 일이 있어도 금방 털어버리고 웃을 수 있게 되었다.

권역 공동사업에 있어서 권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희망권역에서는 급식, 숙박, 침구류 세탁, 체험에 참여할 주민들을 자발적으로 모집하였다.

참, 그리고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권역에서는 침구류 세탁을 업소에 맡기거나 숙박팀에서 직접 세탁을 하지 않고, 연로하셔서 딱히 권역사업에 참여할 처거리가 없는 분들에게 침구류 세탁하는 일을 맡겼다. 어르신들 가정에 대부분 세탁기가 있기에 세탁하는데 그리 어려움은 없었고, 뭔가 같이 한다는 것이 좋으신 듯하다. 돈이야 몇 푼 안 되지만, 젊은이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하신다.

팀별로 참여주민들이 확정되면 팀장을 선출하고, 조를 구성하고 조장을 선출한 후 각 개인별 참여대장을 작성한다.

주민참여현황이나 참여대장은 각 팀의 팀장이 그날그날 작성해서 사무장인 내가 확인을 하고 있다. 그래야만 매월 말에 지급하는 보수를 계산함에 있어 일한만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참여 현황표

<u>00팀 주민참여현황</u>						
일자	조장	조원			식사시기 (숙소 수)	확 인

개인별 참여 대장

<u>개인별 참여대장</u>			
<input type="checkbox"/>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주민번호		연락처	
주 소			
계좌번호		은행	
<input type="checkbox"/> 참여현황			
일자	참여내용		확 인

#참여주민은 팀별로 철저한 교육을!

참여 주민들은 반드시 팀별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업무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연습을 시키고 매뉴얼을 드려도 50년 이상 당신들의 몸에 배인 습관을 고치기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았다.

그래도 업무 매뉴얼에 따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다. 괜히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희망권역의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없기에 가끔은 싫은 소리를 하기도 한다.

처음엔 기분 나빠 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나를 보면 '나 시키는 대로 잘 하고 있지?' 라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이제 감시 그만해도 우리 잘 하고 있다. 그치?' 라고 하시면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동의를 구하기도 하신다. 아직은 사무장의 마음에 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많이 바뀐 건 사실이다. 나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항상 말한다. '가능하면 시골스럽게 그러나 위생과 청결은 최우선으로'라고.....

희망권역 같은 시골을 찾는 분들은 고향을 느끼고 싶어 한다. 세련되고 편리하게 여가시간을 보낼 마음이었으면 절대 희망권역을 찾지 않을 것이다. 추억과 향수를 느끼고 옛스러움을 즐기고 싶은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시골의 따듯함과 정서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물론 쾌적하고 깨끗한 것은 기본이다.

업무 팀별 교육 지침

급식팀 업무 매뉴얼

1. 위생모, 위생복, 위생앞치마, 위생장화를 착용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다.
2. 주방바닥과 조리대를 깨끗이 세척한다.
3. 조리도구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깨끗한 물에 세척한다.
4. 재료는 잘 손질해서 깨끗이 씻는다.
5. 인공 조미료는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다.
6. 사용한 조미료 통은 깨끗이 닦아서 잘 정돈해둔다.
7. 조리된 음식은 뚜껑을 덮거나 랍을 씌워, 작은 접시에 집게와 함께 급식대 위에 급식 순서대로 놓아둔다.
8. 식탁을 깨끗이 닦고, 냅킨을 채운다.
9. 퇴식대를 준비한다.
10. 식사 후 남은 음식은 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한다.
- 2식이상 연속해서 같은 반찬을 같은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11. 그릇을 깨끗이 세척한 후 반드시 살균처리한다.
12. 식탁과 바닥을 깨끗이 청소한다.
13. 남은 식자재를 밀봉하여 냉장고에 보관한다.
14. 행주는 삶아 뺀다.
15.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다.
16. 위생모, 위생복, 위생앞치마, 위생장화를 세탁한다.

숙박팀 업무 매뉴얼

1. 사용한 침구류는 세균탈취제를 분무한 후 햇빛에 소독한다.
 - 베갯잇은 매회 교체한다.
 - 매트와 이불은 5회 사용 후 세탁한다.
2. 숙소내부에 조리시설이 있는 경우
 - 파손되거나 없어진 비품이 없는지 확인한다.
 - 비품들을 깨끗이 세척 한 후 물기를 제거한 후 정리한다.
 - 썩크대, 조리대, 렌지대를 수세미로 깨끗이 닦은 후 물기를 제거한다.
 - 행주와 수세미를 깨끗이 세척하여 말린다.
 - 세정제를 보충한다.
3. 화장실 청소를 한다.
 -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세제를 푼다.
 - 세제 푼물을 타월에 적셔 거울과 화장실 벽을 닦는다.
 - 풀어놓은 세제 물을 바닥과 변기에 골고루 뿌린다.
 - 화장실 솔을 사용하여 바닥과 변기를 깨끗이 닦는다.
 - 샤워기를 이용하여 거울과 화장실벽, 바닥, 변기의 세제 찌꺼기를 닦아낸다.
 - 마른 걸레로 물기를 제거한다.
4. 방청소를 한다.
 - 쓰레기통을 비운다.
 - 진공청소기로 바닥과 창틀에 낀 먼지를 청소한다.
 - 바닥과 창을 닦는다.
 - 텔레비전 등 비품위에 쌓인 먼지를 닦는다.
 - 천정이나 모서리에 거미줄을 확인한다.
 - 현관의 먼지를 청소한다.
5. 외부 청소를 한다.
 - 쓰레기통을 비운다.
 - 건물 외벽에 있는 거미줄을 제거한다.
 - 바닥에 물을 뿌리고 빗자루로 쓴다.
6. 부대시설을 정리한다.
 - 사용한 바비큐 그릴은 비품실에 정돈한다.
 - 기타 시설들에 대해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체험팀 업무 매뉴얼

1. 체험도구를 점검한다.
2. 이야기꺼리를 준비한다.
3. 자신과 작물을 소개한다.
 -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꽃이 피고, 언제 수확하는지 말해준다.
4. 재미있게 진행한다.
5. 체험객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6. 주위의 다른 작물은 해치지 않도록 주의 시킨다.
7. 활용방법에 대해서 알려준다.

#고객 관리는 권역 자산이다

여기저기 홍보를 하고 난 뒤, 알음알음으로 예약문의 전화가 제법 걸려 온다. 기업체의 세미나, 체력단련이나 동창회 모임 같은 단체 행사도 있고 가족끼리 오붓한 여행을 즐기는 분들도 있다.

처음 오는 고객들의 경우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 희망권역에서는 일단 전화가 오면 예약신청서를 펴고 전화를 받는다. 그것이 예약이든 문의든 기타 업무전화든 상관없이 모든 내용은 기록한다. 하물며 방문 예약전화는 얼마나 철저하게 기록하겠는가.

먼저 예약을 받으면 일자별로 예약대장에 접수한다.

예약 신청서 양식

<u>고객 예약 신청서</u>			
성 명		연락처	
주 소		e-mail	
신청 내역			
단체명		이용기간 (박 일)	20 . . . ~ 20 . . .
인원수		방 수	
식사형태	<input type="checkbox"/> 개별 <input type="checkbox"/> 공동	식사횟수	
특별주문 식사메뉴			
희망체험			
부대시설			
결제방법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카드	예약금 입금여부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예약금 현황			
입금자명 (단체명)		입금일자	
입금은행		입금액	
예약취소		취소사유	
			20
희망권역영농조합법인			

시설이용 양식

○○권역 시설이용 내역서

NO 2011-1

20 년 월 일

귀하

아래와 같이 ○○권역 시설
이용 세부내역서를 제출합니다.

공 급 자	등록번호			
	상 호		성 명	
	주 소			
	업 태		종 목	
	전화/팩스			

순번	이용내역	단가	수량	금액	비고
소 계					
부가세					
합 계					

예약대장 양식

예약대장

일자	예약자	인원	연락처	단체명	식사	방배정	부대시설	희망체험

고객관리카드를 작성할 때 그분들의 특이사항을 꼭 기재해둔다. 특히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다음에 또 방문을 해주실 때 그 부분에 신경을 쓰면 사소한 것이지만, 그분들은 그런 작은 것에 감동을 받으실 때가 많다.

방문객들이 퇴실할 때에는 반드시 불편한 것이 없었는지를 물어보거나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개선해야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3일 후에는 반드시 감사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작은 것에 감동하게 되는 게 우리네 세상사는 사람들의 다 같은 마음일 테니까. 우리 희망권역에서는 자주 찾아주시는 고객들에게는 특별히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조금씩 보내드리고 있다. 우리 권역을 사랑하시는 분들에 대한 작은 성의라고 할까?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SMS시스템을 도입했더니, 고객들의 휴대폰 번호를 그 곳에 저장하고 꾸준히 문자를 보내기에 편리해서 참 좋다. 이벤트나 축제소식을 문자 메시지로 전하고, 질 좋은 권역 특산물도 가끔 홍보하기도 한다.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 준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일 테니까 말이다. 너무 자주 보내면 짜증나겠지만, 잊혀질 만하면 한 번씩 상기시켜 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

생각해보면 세상은 참 많이 좋아졌다. 옛날처럼 일일이 손으로 편지를 쓰고 우체통에 넣어야 하는 불편함도 없어졌고, 생각날 때 바로바로 문자라는 것으로 통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만약 예쁜 글씨로 정성이 담긴 편지를 보내면 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여유가 생기면 우리희망권역을 진심으로 사랑해주시는 충성 고객님들께는 희망권역 주민들의 진심을 담은 예쁜 손글씨 편지를 꼭 보내보리라 다짐한다.

무엇보다 방문고객은 명단을 작성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권역의 자산이다.

고객관리카드 양식

고객관리카드

고객번호 :

성 명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연락처		e-mail	
주 소			
직 업		직장명	
기 타			
방 문 현 황			
일 자	방문형태	이용시설	기타
	<input type="checkbox"/> 가족 <input type="checkbox"/> 단체	<input type="checkbox"/> 숙소 <input type="checkbox"/> 식사 <input type="checkbox"/> 회의장 <input type="checkbox"/> 체험 <input type="checkbox"/> 기타	

20

희망권역영농조합법인

비법4. 들어나 봤나, 완전무결 회계처리

회계, 회계??? 나는 숫자만 봐도 기겁하는데 사무장이 되고나서 장부를 들고 숫자와 씨름을 하는 날이 많았다.

권역사업이든 마을사업이든 공동으로 하는 일에는 반드시 갈등이 생기게 된다. 그 갈등의 원인으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금전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금전상의 오해로 갈등을 빚은 몇몇 선행권역의 사례를 보고 우리 희망권역에서는 회계처리 만큼은 절대적으로 투명하게 하자고 다짐했다. 다행히 우리권역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모두 사심을 버리고 권역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처리하려고 하니 이것저것 챙겨할 것들이 많긴 하다. 장부정리도 꼼꼼히 해야 하고, 비용을 집행할 때마다 결의서에 결재를 받아서 정리도 해야 하고, 매 월말 마다 약식으로 결산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주민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보고를 하면 주민들은 권역이 어떻게 운영되어 가는지를 알게 되어서 좋고, 운영진은 운영진대로 그간의 활동에 대해 주민들의 칭찬과 격려로 힘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잡기가 아니겠는가.

권역에 고객들이 찾아오고, 농특산물의 직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당장 소득이 하루아침에 두 배 세 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권역센터가 문을 열고 소득법인이 운영된다고 해도 처음부터 이윤이 남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윤이 나거나 손실이 나거나 그 과정을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전달한다면 주민들과 운영진간의 신뢰는 더욱 더 두터워질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바로 신뢰를 바탕으로 희망권역이 더불어 행복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신뢰의 바탕에는 바로 투명한 회계가 있다. 그 사실은 운영진을 비롯한 주민 모두가 가슴에 새기는 사실이다.

#세상의 모든 회계

회계는 아무래도 챙겨야 할 서류도 많고, 작성해야 할 장부의 종류도 많다. 그만큼 사무장인 내가 해야 할 일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좀 복잡하고 힘들긴 해도 내가 누구인가? 천하의 희망택 아닌가? 우리 전국의 사무장님들은 또 누군가? 모두가 내놓으라 하는, 한가닥하는 피가 끓는 열

성동지들 아닌가? 이끌어 주는 선배 사무장이 있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힘이 되는 동무들이 있지 않는가?

사무장이 혼자서 아무리 회계를 투명하게 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절대로 아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일인 것이다. 다만 사무장은 회계가 투명하도록 행정적인 업무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나를 비롯한 전국의 사무장들이 경영이나 회계를 전공한 것도 아닌데 과연 회계처리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 뭐 권역의 회계처리가 전공을 해야 처리 할 만큼 그렇게 전문적인 것은 아니다. 알고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초적인 회계처리인 것이다. 그리고 모든 회계처리를 권역에서 직접 처리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려면 전문적으로 회계업무를 본 사람이 맡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세무사사무소가 있어서 참 편리하다. 세무사사무소나 회계사 사무소에 월 10만 원정도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웬만한 세금신고나 결산은 세무사사무소에서 대행해준다. 갈수록 세상이 편리해지는 것 같다. 대신 돈이 들긴 하지만 말이다.

그렇다고 회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으면 권역 전체를 경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회계의 기초 정도는 맛을 봐야 할 것 같다. 세무사사무소에서 결산서를 가져다주면 그것을 해석할 정도의 능력은 되어야 할 것 아니겠는가? 회계와 관련된 전문 용어도 익혀야 하고, 부기방법,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작성방법의 기초적인 수준은 익혀야 할 것 같다.

사실 나는 숫자에 참 둔하다. 그런 내가 가끔씩 야근을 해가며 숫자와 씨름하고 있을 때면, 내 자신이 불쌍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무엇을 위해 이려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물어볼 때도 있다. 그런데 숫자라는 놈은 이제 내가 좋은 것 같다. 그렇게 싫다고 밀어내도 이제는 숫자라는 놈이 내게 영커 붙어서 떨어지질 않으니 말이다...

매달 월말이 되면 머리가 팽팽 들게 숫자와 싸운다. 어디에서 꼭 한 놈이 말썽을 부리기 때문에 몇 번을 맞춰야 한다.

★ Tip! Tip! Tip 회계용어 들여다보기!!! ★

일반적으로 회계는 재무회계와 세무회계로 나뉜다. 재무회계는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자본의 변동, 그리고 이익잉여금의 처분과 현금흐름

을 표시하는 것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된다. 그러나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는 권역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설명을 제외하겠다.

재무상태표의 기본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이다. 자산은 일반적으로 재산과 같은 뜻으로 쓰이며, 유·무형의 물품이나 재화나 권리와 같은 가치의 구체적인 실체를 말하며, 자산= 부채+자본의 관계가 성립된다.

회계상 자산의 종류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된다.

부채는 일반용어인 채무와 같은 말이나 회계학상으로는 채무의 성격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부채는 기업이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매하거나 금전을 차입하였을 때, 기업이 소비한 전력이나 용수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종업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한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된다.

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액으로 순자산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주주지분은 자본과 동의어로 사용된다.(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주는 주주이다)

자산과 부채의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 말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를 유동으로 12개월 이후를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대부분의 회계기간이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보고가 종료되기 때문에 12.31일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손익계산서의 기본요소는 수익과 비용, 포괄이익이다. 수익은 기업이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이다. 수익은 기업의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금유입액을 나타내며, 경영활동의 종류와 당해 수익이 인식되는 방법에 따라 매출액,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및 임대수익 등과 같이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비용이란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이다. 비용은 기업의 주요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금유출액을 나타내며, 경영활동의 종류와 당해 비용이 인식되는 방법에 따라 매출원가, 급여,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임차비용 등과 같이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포괄이익은 기업의 순이익에는 실제로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장부상에만 나타나는 이익항목들로서 순이익에는 반영하지 않고 대차대조표 상 자본금 항목에만 나타난다.

회계처리의 처음과 끝

구분	업무
예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년간 예산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년간 사업장별 예상 수익 추정 - 년간 비용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별 예상 비용 추정 ○ 년간 사업계획 수립
세무회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증빙자료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매출 증빙자료 구분 정리 - 주민 인건비 지급 확인서 - 각종 공과금 납입 증명서 등
회계장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별 입출금 장부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출납 및 외상매입·매출 기록 - 권역전체, 소득법인, 체험법인, 특산물판매 등 사업장별 구분 ○ 비용집행 결의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구입, 인건비 지급 - 출장여비 지급 등
재무회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자료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법인별 결산자료 취합 - 법인 결산결과 권역결산에 반영 - 결산보고 ○ 권역기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주체별 납부금 확정 및 납부독려 ○ 이익잉여금 처리

#사무장이 기록하는 회계장부

우리 희망권역에서는 운영주체별로 각각의 회계장부를 기록하고 있다. 번거롭긴 하지만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 분석을 통해서 각 운영주체별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권역은 희망권역센터, 소득법인(2), 농특산물 판매, 행복마을 체험센터가 있다. 우리 희망권역에서는 권역 내에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를 활용하여 주민들이 공동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상품화하였다. 그래서 농특산물 판매는 권역상품의 경우는 판매대금 전체를 권역수입으로 처리하고, 농가

의 농특산물을 대행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수수료만 권역 수입으로 처리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농가 수입으로 처리한다. 농특산물의 판매 우선 순위는 권역상품을 우선으로 판매하기로 주민회의에서 결정했다. 권역상품은 우리 권역의 대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희망권역은 우리 권역만의 대표 농산물이 없는 실정이다. 그저 어느 시골에나 있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만의 대표 상품개발이 필요하고, 유희지를 이용해서 상품화가 가능한 대표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농가 농특산물 판매는 희망하는 농가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주문순서대로 공정하게 분배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누구를 더 많이 배분해 준다 어쩐다 말이 많았지만, 매 월말 주민회의에서 내역을 공개하면서부터는 권역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든 믿어주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우리 희망권역은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조직과 회계 시스템 체계적으로 갖추고자 노력했다. 초반에는 시행착오도 겪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다고 자부한다.

우리 희망권역의 회계시스템은 각 운영주체별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그 자료를 기초로 권역전체의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 희망권역은 매년 12월말에는 그 해 일 년간의 비용과 수익을 검토해서 다음해의 사업을 계획하고 적정한 수익과 비용을 예상해서 계획을 수립한다.

수익은 운영주체별로 일 년간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듬해 가능한 금액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응되는 비용을 예상한다. 예를 들어 센터의 수익을 예상과 비용 계획을 수립하기위해서는 연간 센터의 방문객, 숙박, 식당, 회의장대여금과 센터운영에 집행된 비용을 분석하여 방문객수를 예상하여 수익과 비용을 예상한다. 그리고 비용은 세부적으로 항목별 예산을 수립하고 가능하면 항목에 맞도록 집행하려고 노력한다.

운영주체별로 연간 계획이 수립되면 권역 전체의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수립한다.

희망권역을 예로 들면, 숙박 등의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 축제나 이벤트를 개최한다거나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획한다. 이 계획서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전의 계획이다. 이벤트나 축제를 하고자 할 때는 각 행사에 필요한 비용과 행사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반영해서 계획을 새롭게

작성해야 한다.

연간 예산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서 집행하면 권역을 경영함에 있어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권역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면 바람직 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감히 추천해 본다.

회계장부는 수입과 지출과 적요가 나와 있는 간편일률적인 일반양식이 아니라 우리 희망권역 사업에 맞게 나름대로 양식을 변경해서 사용한다.

장부는 아무리 바빠도 건건이 바로바로 작성한다. 장부작성을 처음 할 때는 바쁜 일이 있으면 다음날로 미루곤 했는데, 아무리 기억력이 좋다고 해도 가끔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는 바람에 좋지도 않은 머리로 기억해 내느라 고생한 일이 몇 번 있었다. 그 이후로는 아무리 바빠도 그날그날 작성한다.

항목에는 가능하면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적고, 결제방법에 따라 구분하고, 비고에는 기억해두면 좋을 내용들을 적어둔다. 가령 무통장입금의 경우 언제 입금이 되었는지와 같은 것을 적는다. 이렇게 장부를 작성하면 웬만하면 거의 모든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어서 결산하기에도 참 편하다. 월별로 현금수입이 얼마인지, 카드나 세금계산서 수입은 얼마인지, 권역에서 부담해야 할 카드 수수료와 납부해야 할 세금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증빙자료를 정리할 때도 아주 편리하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결재를 하고 증빙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세금납부와 관련한 일체를 세무사사무소에서 대행하고는 있지만, 모든 증빙자료는 권역에서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입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법인카드로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받고, 농수산물의 경우 권역 주민들에게 직접 살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기재한 판매확인서를 받으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조금 귀찮더라도 증빙서류를 챙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나랏돈으로 하는 사업이라 세금을 포탈해서도 안 되겠지만, 굳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낼 필요는 없으니 말이다.

또 우리 희망권역은 비용집행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한다고 자부하고 있다. 물건을 사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출장을 갈 때도 비용집행은 반드시 결의서를 발행하고 있다. 우리 희망권역만의 지출 결의서를...

사실 요즘은 컴퓨터와 인터넷만 있으면 웬만한 정보는 다 얻을 수 있다. 회계장부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일일이 손으로 작성했지만, 요즘은 엑셀로 나만의 장부를 만들 수도 있고, 월 4만 원선이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산 회계프로그램도 있다. 초기 가입비는 별도로 발생한다. 그러나 세무사사무소에 회계업무를 대행시킬 경우에는 굳이 매월 비용을 들여서 회계프로그램을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만의 엑셀 장부를 만들면 될 것 같다.

항목별 예산 알아보기

비용 세부항목 구분

- 인건비 : 사무장 및 소요인력의 인건비
- 물품구입비 : 운영과 관련한 필수 물품 구입비
- 업무주진비 : 운영과 관련한 접대비 및 업무 주진과 관련한 비용
- 여비교통비 : 운영과 관련한 교육, 워크숍, 견학에 소요되는 여비
- 회의비 : 운영과 관련한 회의에 소요되는 비용(다과비, 식비 등)
- 세금과공과 :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세금, 통신비, 보험료 등
- 기타잡비 :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타 비용(위생복, 위생모, 장화, 행주, 수세미 등 기타)

예산계획 양식

희망센터 예산계획

구 분	항 목	산출내역		비 고	
		금 액	세부내역		
영업손익		34,880	수익-비용	이익발생	
수 익	합 계	149,000			
	숙박수익	64,000	40인×10천원×160일		
	식당수익	60,000	40인×3식×5천원×100일		
	체험수익	20,000	40인×10천원×50회		
	임대수익	5,000	100천원×50회	회의장 등	
합 계		114,120			
비 용	인건비	소 계	51,900		
		사무장	16,800	급여 : 1,200천원×12개월 상여금 : 1,200천원×2회	
		급식팀	12,000	팀장 : 100일×4만원 팀원 : 100일×4만원×2인	3식을 1일
		숙박팀	9,600	팀장 : 160일×2만원 팀원 : 160일×2만원×2인	
		체험팀	3,000	팀장 : 50일×2만원 팀원 : 50일×2만원×2인	
		침구세탁	10,500	50장(set)×7천원×30회	
	물품 구입비	소 계	39,600		
		쌀	600	40명×3식×100일=12,000식/400(80kg)	
		부식류	36,000	1식(40인기준)×3식×120천원×100일	
		식기류	1,000	파손 또는 분실 식기류 구입	
		침구류	1,000	파손 또는 분실 침구류 구입(수건포함)	
		집기류	1,000	파손 또는 분실 집기류 구입	
	업무추진비		2,400	200천원×12개월	
	회의비		2,400	200천원×12회	
	여비교통비		3,600	150천원×12회×2인	
	세금과 공과	소 계	14,920		
		전기세	7,200	600천원×12개월	
		전화요금	360	30천원×12개월	
		인터넷	360	30천원×12개월	
		부가세	5,000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보험료		2,000	화재보험, 체험보험 등	
	난방비		1,800	300천원×6개월	
	시설운영비		3,600	300천원×12개월(보일러 및 시설 수리)	
	기타잡비		3,000	그 외 운영에 필요한 비용	
	교육훈련비		5,000	주민교육에 필요한 강사비, 견학비용	
	예비비		10,000		

입출금장부

희망권역센터 입출금장부									
날짜	항목	수입				지출			비고
		현금		카드	세금 계산서	현금	카드	세금 계산서	
		현금	무통장						

지출결의서

지출결의서				
희망결의2011-				
결 재	담 당	총 무	부 위 원 장	위 원 장
처 리 일	처 리 자			
금 액				
계 정 과 목	내 역	금 액	지 출 방 법	비 고
상기금액을 지출하겠습니다.				

#매입매출 자료는 권역에서, 최종 결산은 회계사

일 년이란 시간은 긴 것 같지만 막상 살다보면 어느새 후딱 지나가 버린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면 희망권역 일 년 농사를 결말을 지어야 할 시점이 된다. 세월의 무상함을 느낄 틈도, 나이 들어감을 한탄할 겨를도 없이 주어지는 연말결산이라는 막중한 과제

앞에 골치가 아파오지만, 보람도 있다.

그동안 월말마다 간이 결산과 6월말에 반기결산을 거치면서 정리를 잘 해 놓은 덕분에 해마다 연말결산은 수월히 지나가는 편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수월하다고 쉽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언제쯤이면 숫자와 친해질지 모르지만, 아직도 나 희망택과 숫자는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희망권역은 각 사업장(운영주체) 단위로 결산을 하고 난 후에 권역 법인이 결산을 한다.

각 사업장은 결산을 하기 전 12월 10일까지 사업 보조금의 2%를 권역기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결산에 반영하여 이듬해 1월 5일까지 연도 말 결산을 하고 그 결과를 권역법인(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그러면 권역 법인은 권역기금 납부현황을 반영하여 권역법인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들과 함께 결산을 하고 있다.

서로 조금 번거롭기는 해도 서로간의 믿음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소득법인에서도 불만 없이 협조를 잘 해주고 있다. 소득법인의 회계도 따라서 투명해지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서로 믿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만약에 법인의 살림이 투명하지 못하고 어느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경영을 하게 된다면 비록 앞에서 그 사람을 욕하지는 못해도 뒤에서 수군거릴 것이고, 법인의 장부도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희망권역은 애초부터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고 했기 때문에 비록 실무자들이 힘은 들지만, 서로 믿고 의지하는 희망권역이 되어가고 있다. 감히 희망택은 말하고 싶다. 전국 어디에서도 희망권역처럼 투명한 권역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자랑하다가 어디선가 우리보다 더 깨끗한 권역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 권역이 창피를 당하는 걸까? 그건 아닌 거 같고... 뭐... 우리 농촌마을이 무지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기뻐해야 할 일이겠지? 아무려면 어쩐가? 우리권역보다 더 깨끗한 권역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기를 바랄뿐이다. 그래야 희망권역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결산서는 세무사(회계사) 사무소에서 작성하지만, 매입, 매출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권역에서 준비해야 한다. 일반 기업체와 권역법인의 경우는 좀 다르기 때문에 세무사사무소 담당자와 협의해서 권역의 연도 말 결산을 해야 한다.

하지만 결산서를 세무사 사무소에서 작성한다고 해도 사무장이나 권역법인의 임원은 그 결산서를 해석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서는 미리 공부를 해 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삼일회계법인에서 실시하는 회계관련 자격증에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회계관리 2급의 경우는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도전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회계관리 자격증은 민간기업인 삼일회계법인(www.samilexam.com)에서 실시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제도이다.

결산을 하기 전에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배당금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배당금을 지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느 정도 지급할 것인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이후에는 이익잉여금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해야만 한다. 그럼 여기서 잠깐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맛보기가 필요할 것 같다.

★ Tip! Tip! Tip !!! ★

- 이익잉여금 처분 엿보기

이익잉여금은 쉽게 말해 권역의 운영결과 발생한 이익으로 조합원 또는 마을별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남아있는 금액이다. 이익잉여금은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차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된다.

이익준비금은 법률에 의해서 강제로 적립되는 법정준비금으로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에 이익배당액의 1/1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한다. 자본의 1/2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은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된다. 이익준비금의 용도는 주로 결손의 보전에 충당하고, 이사회에 결의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수도 있다.

기타법정적립금은 상법 이외의 조세감면규제법이나 상장법인 등의 재무관리규정에 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 적립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말한다.

임의적립금은 사업 확장 적립금, 감채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결손보존적립금 등 법인의 정관의 규정이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립되는 적립금이다. 기타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은 이익준비금이 법적으로 적립한도가 있는 것과는 달리 법적인 적립금액의 한도는 정하지 않고 있다.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은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이 되는 것이다.

이정도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권역 경영의 실무자로 웬만한 수준 이상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비법5. 똑소리 나는 시설물 관리

센터 완공후 권역에 시설물이 하나 둘 들어섰다. 재산이 늘면 걱정도 늘어나다고, 늘어나는 시설물만큼이나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고민이 쏟아진다.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사무장이 만능도 아닌데 말이다. 그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 시작하기 전부터 겁먹지는 말자고 다짐한다.

운영위원회에서 누구와 같이 시설물을 관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의논을 하다보니, 어느 정도 윤곽도 잡혀갔다. 각 시설물의 운영관리자를 지정하기로 하고, 사무장은 전체적인 관리만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면 차차 나아질 것이다. 좀더 체계도 잡힐 것이다. 지금 당장 멋있게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 권역사업이 모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은 없으니 말이다.

시설물 관리의 모든 것

구 분	업 무
인계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협약서 작성(지자체, 위탁시행사 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법과 관련한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산출 근거 ○ 시설물 무상 사용허가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사업으로 구축된 시설물에 대해 무상사용 조례(안) 제정 건의
시설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운영·관리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안내판 부착 ○ 설비자산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점검일지 확인
자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관리번호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 지정 ○ 자산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인 자산점검
비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품목록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구류, 체험도구, 주방기기, 전산소모품, 포장재, 기타 등 ○ 비품 관리자 지정 및 정리정돈

#사용료는 열심군과 '통 치다'

권역에 시설들이 하나 둘 완공되어 갈 무렵부터 추진위원회와 열심군에는 걱정거리가 생겼다. 건물들의 소유권이 열심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주민들에게 시설물의 운영권을 주기 위해서는 임대계약을 해야 하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솔직히 권역에서 사용료를 내면서까지 운영하기에는 벅찬 것이 현실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놓고 열심군 담당자와 우리 추진위원회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같은 농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구축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무상사용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일이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단시일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희망권역만이 아니라 후발권역을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용료에 관한 내용의 조례(안)이라서 주민발의 제한사항이라 주민이 직접 발의 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원이 발의를 할 수 있도록 군수님이나 의원님을 설득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해야 할...

우리 권역은 시간이 걸리는 조례개정은 장기적인 과제로 뒤로 미루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하는 상황에서 방법은 한가지 밖에 없었다. 운영협약서를 작성할 때 열심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유지관리비를 사용료와 상쇄시키는 내용의 조항을 넣는 것이었다.

희망권역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은 당연히 희망권역에서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터라 우리 권역에서는 무리한 일이 아니었다.

비록 시설물의 등기는 열심군으로 되어 있지만, 협약을 통해 우리 희망권역으로 운영권이 넘어 오는 순간부터는 우리 희망권역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민 모두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주민들에게 주인의식 갖기 캠페인이라도 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 드렸더니 우리 위원님들 참 명쾌하시다. 곧바로 각자 마을 주민들에게 희망권역의 시설물은 모두 내 것처럼 사용하자고 캠페인을 벌이고 다니셨다. 참 멋진 분들이시다. 그런 분들과 함께 일하는 나는 참 행운인 것 같다. 그분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참 좋겠다.....

우리 희망권역은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설물의 운영관리자를 지정하고 잘 보이는 곳에 시설물명과 관리자 지정현황 안내판을 부착했다. 시설물 운영관리자는 두 사람 이상으로 지정하고 안내판에는 연락처도 표시했다. 누구나 시설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말이다.

#필수품은 사업비로, 소모품은 주민들의 발품으로!

시설물의 외부가 완성되고 내부 구석구석에 필요한 물품들을 채워야 할 무렵 필요한 모든 비품을 사업비에서 사달라고 해야 한다는 주민들과 꼭 시설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물품만 사업비로 사고 소모성 비품은 우리 권역 주민들이 사야한다는 담당자 사이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지만, 어차피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해야 할 일들은 너무 많았다.

나는 이런 사소한 비품까지 사업비로 산다면 다른 어디에선가는 꼭 필요한 것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치자 위원장님께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소모성 비품을 사기위해 돈을 마련할 방안을 찾아야 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출향인사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조그마한 보탬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는 일이었다. 이 일은 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발 벗고 나서 주셨다. 다행히 웬만한 비품들은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모였다. 권역 통장에 이름과 금액이 찍힐 때마다 나는 장부에 잘 기록해 두었다. 훗날 그분들의 정성이 밑거름이 되어 우리 희망권역이 활성화가 되면 그분들의 고마움에 대한 작은 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권역 자산관리는 이렇게!

시설물의 내부를 채운 비품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희망권역 자산으로 등록했다. 자산관리대장을 작성할 뿐 아니라 관리자도 지정해서 부착했다.

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으로 구분했다.

토지는 권역 사업으로 취득한 토지로, 건물은 건물과 냉난방장치, 조명, 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기계장치는 소득사업의 생산을 위해 구입한 자산을 말하며, 차량운반구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운송수단, 비품은 그 외 전산장비, 공구, 기구, 책상, 의자, 소파 등으로 소

모품을 제외한 모든 비품을 포함한다.

자산은 구입할 당시에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기록하면 권역의 자산 이동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자산관리대장과 함께 자산관리자를 지정해서 표로 부착해 놓으면 관리자들은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각각의 자산에 관리자지정표를 부착했더니 역시 효과만점이었다. 쳐다보지도 않을 거 한번 쳐다보고, 한 번 쳐다볼 거 두 번 쳐다보고, 진심으로 아낀다는 것이 눈에 보였다. 그 시설물이 지저분하면 본인의 얼굴이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분들이 나중에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기계장치가 설치된 곳에는 기계점검일지를 비치하고 기록하도록 유도했다. 기계를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청소도 하도록 말이다. 담당자가 점검일지를 기록하면 권역에서 1달에 1번 일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가끔 불시에 점검을 나가기도 했다. 처음에는 반발이 없지 않았으나, 위원장님의 조용한 카리스마에 압도당했는지 이제는 꽤 협조적이다. 다 같이 재미있게 잘 살아보자는 뜻을 모두들 이해하신 결과가 아닐까 싶다.

시설물을 주민들에게 자율적인 관리를 맡기면 권역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면 그것은 절대로 아니다. 아무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잘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상태나 관리 상태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주민회의 때 발표한다. 그리고 자산 실사는 1년에 한번 11월에 하고 있다.

자산관리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서 잘못 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다. 체계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할 일이 한가지 씩 늘어날 때마다, 힘들다는 생각도 하지만, 나 자신과 우리 권역 주민의 역량이 강화된다는 느낌이 팍팍 들기도 한다. 한마디로 몸은 힘들어도 보람은 있다. 대략 그런 뜻이 아닐까 싶다.

자산관리자 지정 양식

자산관리자지정		
자산명 :	자산번호 :	
관리자	정	부
	홍길동 00리 00번지 (전화번호 :)	김말숙 00리 00번지 (전화번호 :)

자산관리대장 양식

<u>희망권역 자산관리대장</u>										
자산번호	분 류	자산명	제품번호	최초구입일	구입가 (천원)	처분일	처분가 (천원)	장소	관리자	비고
희망-01-001	토지		희망리 57번지	00.00.00	25,000			희망센터		
희망-01-002			대망리 69번지	00.00.00				체험센터		
희망-02-001	건물		희망센터	00.00.00						
희망-02-002										
희망-03-001	기계장 치	과일 선별기	ABC-YZ-000	00.00.00				소득 법인		
희망-03-002										
희망-04-001	차량 운반구	트럭	WBC-0000							
희망-04-002										
희망-05-001	비품	빔 프로젝트								
희망-05-002										

#소모품 비품 관리는 확실하게!

자산관리 못지않게 소모성 비품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비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면 소모품 별로 사용주기, 교환주기 같은 것들을 파악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계획을 세우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비품관리는 각 팀별로 팀장에게 관리권한을 부여하고 사무장은 정기적으로 점검만 하고 있다. 각 팀장에게 책임감과 권한을 주고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 각 팀에서는 팀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팀원 중에서 각 조장들에게 팀장이 비품관리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야 팀장이 없어도 그 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

이제 우리 권역 주민들은 사무장이나 팀장이 며칠씩 자리를 비워도 각 팀에서 알아서 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기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이 들었겠는가.

비품관리대장

<u>비품관리대장</u>												
물품명	사용장소	보관장소	책임자	최소수량	변동사항							
					일자	사유	수량	잔량	일자	사유	수량	잔량
수건	숙박	창고	숙박팀장	100	00.	남아서 폐기처분	10	90	00.	신규 구입	20	110

비법6. 죽었다 깨어나도 알아야 할 것들(Tip)

#나와 주민들의 역량 높이기엔 힘 써자!!!

사업이 완료되면 권역에서 스스로 주민들의 역량강화에 힘써야 한다. 자체교육도 시행하고 견학도 준비해야 하는데, 이때부터는 사무장의 역할이 많아지게 된다. 사업이 추진 중일 때에는 역량강화 전문 업체에서 교육과 견학을 시행하고 사무장이나 추진위원회와는 업무협의를 하고 주민들이 교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정도였지만, 이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권역에서 준비해야만 한다.

구 분	업 무
교육 및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교육계획 수립 - 주제선정 및 일정, 장소 협의 - 강사섭외 - 교육실시 알림 및 주민참여 부탁 ○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학주제 및 견학장소, 일정 협의 - 버스임차 및 간식준비 - 견학지 정보 등 견학 소책자 제작

처음으로 권역에서 교육을 준비할 때는 뭐부터 해야 좋을지 몰라 우왕좌왕 했었지만 지금은 교육준비? 그까이꺼 뭐, 별거 아닌 것이다. 우리권역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목요일은 교육하는 날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목요일에는 무조건 교육하는 날이 되었다. 그것이 정식으로 강사님을 초청해서 하는 교육이든, 사무장이나 위원장, 그리고 군 담당자, 위탁시행사 담당자가 전달교육을 하든 어떤 교육이든 좋았다.

사업이 완료되고 처음 몇 달간은 교육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다. 당장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역운영위원회가 고민에 빠져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주민들은 목요일이면 저녁을 일찌감치 드시고 어김없이 센터로 나들이를 오시고 계셨다.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마음을 다잡고 운영위원님들과 회의를 한 결과 보건소나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관련 강좌들을 우리 권역으로 유치해 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대부분의 그러한 사업들은 연초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서둘러 알아보았다. 다행히 열심군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건강강좌를 우리 권역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찾아보면, 지자체 보건소나,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서 시행하는 건강관련(요가, 노인체조 등) 지원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다. 이런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규모의 인원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장소를 결정하고 원하는 건강교육을 신청하면 해당단체에서 강사비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우리 농촌마을 권역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다면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보건소 건강교육을 계기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였다. 사업기간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부족했던 부분과 주민들이 받고 싶은 교육을 조사해서 반영했다.

강사님은 가능하면 지역 내이거나 인근도시에서 활동하는 분들로 섭외를 했다. 운영단계에서는 기술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실무위주의 교육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우리권역의 인재들을 가능한 한 많이 참여시켰다. 주민들 중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유한 분들이 많이 있다. 그분들은 귀촌을 하시고 우리 권역에 터를 잡으신 지는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우리권역의 터줏대감들도 계신다. 함께 어울려 재미있게 놀아보자는 의도가 다분하게 깔린 교육이다.

연간 교육계획이 수립되고 강사님들의 섭외가 끝나면 강사님들과 교육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 전문적인 강사님의 경우는 강의 자료를 부탁하지 않아도 교육 방향만 설명해 주면 알아서 준비를 해 주신다. 그러나 강사가 주민인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강의 자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

교육이 놀이가 될 수 있도록 재미있는 교육으로 주민들을 다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게 하는 것도 이 사업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자식 키우고 먹고 살기 바빠서 학창시절 이후로 뭔가 배우고 아이디어를 내고 회의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 특히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주민들에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 주고, 모두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는 생각이 든다.

견학은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 년에 몇 번씩이나 갈 수 있지는 않다. 많으면 두 번 정도,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정도로 만족해야 한다. 견학을 하기 위해서는 견학의 목적부터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어디로 갈 것 인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견학지를 결정하고 나면 견학지 담당자와 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견학대상자를 선발하고, 견학지에 대한 정보를 담은 견학소책자를 만들어야 한다. 견학 소책자에는 견학지의 목적과 견학지의 정보,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들, 그리고 주민들이 느낀 점을 기록할 수 있는 메모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가능하다면 권역 전담 자문가와 함께 견학을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전문가는 주민이 놓치고 올 수 있는 부분,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등 핵심부분을 파악해 줄 수 있고, 또 어떤것들을 배우고 어떤것들을 배우지 말아야 할 지에 대해 조언해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견학은 관광이 아니라는 것을 주지시켜야 하며, 가능하다면 술은 가져가지 않아야 한다. 술은 견학이 끝나고 권역에 돌아와서 한잔씩 해야 한다. 술자리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배우지 말아야 하는지를 얘기하는 자리라면 더 없이 좋은 자리일 것이다.

우리 권역의 견학에는 술이 없다. 대신 토론의 장이 있다. 처음엔 반발도 있었지만, 견학이 거듭될수록 토론의 맛에 빠져 버렸다. 처음 토론을 할 때는 토론인지 싸움인지, 듣지는 않고 서로 말하려고만 하는 요령도 두서도 없는 토론이었지만, 이제는 위원장님의 진행에 잘 따르고,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줄 알게 되었다. 정말 장족의 발전이다.

#권역 홈페이지 멋지게 관리하기!

권역 홈페이지가 생겼다. 나를 비롯한 대부분이 한마디로 컴맹인지라, 권역 주민들에게 인터넷 활용 교육을 했다. 사업기간에는 역량강화사업 시행업체에서 거의 모든 교육내용과 일정을 관리해 줬다. 홈페이지의 기능적인 문제나 업데이트도 업체의 힘을 빌렸다.

사업이 완료됐다. 업체가 떠났다. 아이고, 이걸 어찌나. 그만 막막해져버렸다. 그때서야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 조금 힘들어도 조금 느려도 권역에서 주체적으로 나서서 할 걸 그랬구나 싶은 때늦은 후회가 밀려왔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 관리자 매뉴얼을 찾아

서 열심히 공부했다. 다행히도 매뉴얼에 상세히 나와 있어서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

홈페이지는 억지로라도 활성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억지로 활성화 할 사람은 사무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을 주축으로 주민들의 협력으로 해내야 한다. 홈페이지를 방문했는데 사진이나 게시 글들이 몇 개월 전의 것이라면 나 같아도 다시 방문하기 싫어질 것 같다. 누군가의 글을 보고 나도 글을 올리고 싶어질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

계절에 따라 메인화면 사진도 바뀌어야 하고, 권역 소식도 자주 올려야 하고 게시 글에 대한 답 글도 바로바로 해줘야 한다. 또한 숙박이나 체험 예약관리도 성의껏 해야 한다.

우리 권역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대부분의 권역들의 홈페이지에는 장터기능이 있다. 장터는 권역의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한 공간으로 전자상거래에 행위에 해당된다.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넷파라치의 표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장터기능이 있는 권역이라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권유하는 바이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각 시군의 지역경제과로 직접 찾아가거나 간단하게 인터넷 전자정부 민원24에서도 가능하다.(<http://www.minwon.go.kr>) 민원 24에 접속하면 상단 좌측의 민원안내/분야별민원/경제활동/일반산업지원을 클릭하면 725개의 민원종류가 나온다. 가나다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므로 통신판매업 신고는 거의 끝 부분에 있다.

신청인이 제출할 별도의 서류는 없으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처리기간은 보통 3일정도이며, 연간 45,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간단한 카드단말기 설치 및 활용

요즘은 신용카드의 보급이 보편화가 되어 있어서 시골의 웬만한 가게에서도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권역에서도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 건 기본이다.

카드사용은 카드사와 직접 계약하여 승인을 얻을 수는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맹점과 카드사를 연결하는 밴(van)사를 통해서 각각의 카드사와 카드가맹점 계약을 대행하고 카드 승인을 처리해야 한다. 그렇기 때

문에 일일이 카드사마다 찾아다니며 가맹계약을 할 필요 없이 약간의 대행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대행사에 일임하면 편리하다. 그리고 또 잘 찾아보면 대행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회사도 있으니, 인터넷과 전화연락을 통해 여러 업체를 비교해보고 결정해야 한다.

카드단말기 설치를 위해서는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가맹계약을 맺을 때 업종분류에 신경 써야 한다. 공기업이나 정부기관의 클린카드 사용에 제한이 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분류하게 되면 공기업, 정부기관 등의 단체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정확하게 업종을 구분하자면 농촌마을 권역들은 '농어촌휴양체험시설'로 등록되어야 하나, 현재 카드사 업종분류표에는 '농어촌휴양체험시설'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 그와 비슷한 '문화취미기타'나 '기타 레저업'으로 등록을 하는 것 같다.

클린카드는 '기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업종은 제한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에서는 가능하면 권역법인의 사업자 등록증에 표시되어 있는 업종 중에서 클린카드 제한 업종이 아닌 것으로 분류해야 한다. 가능한 업종을 살펴보면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업종이 통신판매업이나 기타농업관련이 아닐까 생각한다.

<u>클린카드 제한업종 내역</u>		
골프용품	성인용품점	주점
총포류판매	이용원	유흥주점
골프경기장	피부미용실	유흥주점(룸싸롱)
골프연습장	사우나	유흥주점(나이트클럽)
카지노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당구장	기타대인서비스	단란주점(룸싸롱)
노래방	칵테일바	단란주점(나이트클럽)
기타레저업	룸싸롱	기타전문점
문화취미기타	나이트클럽	

#여기를 활용하라- '희망을 가꾸는 농촌마을 이야기'

'내 답답한 속은 어디 가서 해소연할까나?'

사무장 일을 하면서 화병나면 안된다. 그럼 매 순간마다 생기는 궁금증이 나 답답함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권역 사업 초창기 사무장님들은 이곳저

곳에 전화로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요즘은 정말 세월이 좋아졌다.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단방에 시원해진다. '희망을 가꾸는 농촌마을 이야기'에 접속하면 궁금한 걸 물어볼 수도 있고, 내 생각을 공유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답답함을 토로할 수도 있다.

그 곳이 어디냐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이런 거 쉽게 말해주면 안되는 데...에구 기분이다! 같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끼리 화통하게 알려주리다.

인터넷 주소 검색창에 <http://cafe.daum.net/nongchon1000>를 쓰시고 엔터를 치거나 주소창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누른다. 그럼 바로 농어촌지역개발의 역군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게 된다. 그런 다음 카페에 회원 가입하시구요... '처음왔어요'에 들어가서 가입 인사와 등업 신청!

가입하면 바로 준회원이 되는데 준회원은 아무래도 카페 이용에 제한이 좀 있다. 근데 등업이 되어 정회원이 되면 모든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 정회원이 되고 왕성한 활동을 하시면 우수회원이 된다.

'희망을 가꾸는 농촌마을 이야기'에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있어요'에 질의하시면 사업관계자나 선배님들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실 거다. 그리고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정책, 법, 지침, 매뉴얼 등의 개정사항을 알려드리고, 내용을 공지한다. '자유게시판'은 사업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공유하는 곳이다. '자랑하세요'는 본인이 속한 지역란에 권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랑하시면 된다. 그리고 '한줄수다'는 말 그래도 한줄 수다. 넋두리도 좋고, 푸념도 좋고, 그냥 두서없이 쓸 수 있는 공간이다. 다른 사람들 넋두리한 것 읽어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그냥 다 내 얘기같다. 더러는 마음이 짠해지기도 한다.

'희망을 가꾸는 농촌마을 이야기'는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전문가, 컨설턴트, 지자체, 위원장, 사무장, 그리고 관심 있는 도시민, 권역주민들이 모여서 만들어 가고 있다. 참으로 다양한 분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다. 굳이 발품 팔거나 시간을 다댈 필요도 없이 컴퓨터만 켜면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풀 수 있고, 함께 고민 할 수 있는 곳이다. 24시간 대문 활짝 열려있고, 사업의 동지이자 지원자들이 늘 대기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틈틈이, 꼭 익혀야 할 것들

사무장이란 일을 하면서 읽어야 할 책도 참 많고요, 공부해야 할 자료도 너무 많아요.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시죠? 하지만 권역 사업에 꼭 필요한 자료와 권역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분류해서 습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무장이 만능도 아니고 이 모든 자료를 다 어떻게 보냐구요?

사무장이 꼭 알아야 할 관련 자료

필수 자료	선택 자료(필요시)	비 고
예비계획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의 허가, 지구단위계획 등)	
기본계획서	농지법(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등)	
사업별 세부설계	산지관리법(산지전용허가 등)	
역량강화사업(S/W) 시행계획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사업시행지침	문화재보호법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추진 매뉴얼	건축법	
지역역량강화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가이드라인	소방관련법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농산어촌체험관광보험	하천법(하천구역 안에서의 수목식재, 형질변경 등)	
법인설립 관련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연안관리법	
세무회계 관련자료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체험운영자를 위한 농어촌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매뉴얼 (웰존 좌측 로그인창 아래 e-book코너)	
재무회계 관련자료 차변과 대변, 부기방법, 수익과 비용 등	희망을 가꾸는 농촌마을이야기(국내, 국외) (웰존 좌측 로그인창 아래 e-book코너)	
공동시설물 신재생에너지 적용요령	농어촌지역개발 컨설팅 업체 현황 (웰존 좌측 로그인창 아래 e-book코너)	
농산어촌지역종합개발지원사업 시설물(건축물)운영 및 유지관리지침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업무 매뉴얼 (웰존 좌측 로그인창 아래 e-book코너)		

#사무장 교육, 능력이 기회다!

참 많은 사무장님들이 사무장이 되고나서 뭘 해야 하는지, 어떤 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몰라 곤란을 겪었다는 얘길 많이 듣는다. 물론 나 희망택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사무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모아 모아모아 보겠다!

일단 사무장이 필수적으로 수료해야할 교육은 사무장 교육이 있다.

사무장 교육은 농식품부에서 주관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농산업도농교류지원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초급, 중급, 고급으로 단계별로 진행된다.

또한 다른 교육들도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니 권역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이 교육은 년초에 지자체로 공문이 발송되어 교육 희망자를 모집한다. 그리고 '희망을 가꾸는 농촌마을 이야기' 교육정보나 공지사항으로 알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매년 바뀌고, 또 연중에도 바뀌거나 새로 생기는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보에 귀 기울여야 한다. 누가 챙겨주기 전에 내가 먼저 챙기는 것이 가장 좋을 거다.

그리고 사설기관에서 운영하고 농식품부가 인증하는 교육도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시도나 시군에서 실시하는 문화유산해설사 과정도 있는데, 이 교육은 본인이 속한 도나 지자체 문화관광과에 알아보면 된다.

아, 사무장은 요즘 아이들 말로 '만능엔터테이너'가 되어야 함을 절감한다.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

과 정 명	단 계	교육인원	일 정	내 용	대 상
농어촌 리더	초급	30인/1회	1박2일	동기부여 및 리더의 역할이해 등	교육 경험이 적은 리더
	중급	25인/1회(3단계)	2박3일/단계별	벤치마킹 및 워크숍 등	초급 이수자 또는 체험 마을 리더과정 이수자
	고급	25인/1회(3단계)	2박3일/단계별	기획적 사고 함양 등	중급과정 이수자
사무장	초급	25인/1회	2박3일	사무장제도의 이해 등	경력1년미만
	중급	25인/1회(4단계)	2박3일/단계별	업무 스킬 등	초급과정 수료 또는 경력 1년 이상
	마을 기획	25인	2박3일	마을사업 기획 및 브리핑 등	중급과정 수료 또는 경력 1년이상
	고급	25인	3박4일	코칭 및 멘토링 스킬 등	경력 2년 이상의 중급과정 수료 또는 경력 3년 이상
퍼실리테이터		20인(5단계)	2박3일	퍼실리테이터 기본스킬 등	리더, 사무장 고급과정 이수자
농어촌문화 지도사		30인/1회	2박3일	농어촌문화의 가치 발견 및 문화활동 사례 탐구 등	마을리더, 지자체 공무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술인 등
농어촌축제 리더		40인	1박2일	마을의 역사 및 정체성 찾기 등	‘농식품부장관이 선정한 축제’ 지역리더

사설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연 번	인증분야	인증 번호	대표자(단체 또는 기관)		교부일자
			주 소	성 명	만료일자
2009-1	농어촌체험 지도사과정	1	대구대학교 동아시아 관광연구소		'09.12.29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 번지	홍덕률	'12.12.28
2009-2	농어촌체험 지도사과정	2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09.12.2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 38-27	박해상	'12.12.28
2009-3	농어촌마을 해설사과정	1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09.12.2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 38-27	박해상	'12.12.28
2010-1	농어촌체험 지도사과정	3	(주)지역아카데미		'10.5.11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56-13 삼정이오니아 810	오현석	'13.5.10
2010-2	도농교류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1	(사)한국지역활성화포럼		'10.5.11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45-5 이 연빌딩 4층	강형기	'13.5.10
2010-3	농어촌체험 지도사과정	4	(주)지역활성화센터		'10.5.11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45-5 이 연빌딩 4층	오형은	'13.5.10
2010-4	도농교류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2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분단		'10.9.9
			경북 상주시 가장동 386	김인산	'13.9.8
2010-5	농어촌마을 해설사과정	2	(주)지역활성화센터		'10.10.26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45-5 이 연빌딩 4층	오형은	'13.10.25

뒷이야기- 무조건 주민은 내 편!

드디어 사업이 완료!

이제 한 숨 돌릴 여유가 생기겠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사무장은 끊임없이 권역사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해야 한다.

그 중에서 이후 연계사업을 찾아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권역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권역운영위원회에 건의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사무장이 해야 할 중요한 업무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도 있지만, 각 시도나 시군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도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 담당자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내가 필요할 때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창구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알고 감탄하는 자원만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지금은 돌덩이에 불과하더라도 가능성을 발견하고 가능성의 길을 열어 나가는 것이 지역 리더의 몫이다.

사무장은 권역을 경영하는 경영실무가이다.

그래서 사무장은 우리 권역의 리더이다.

나는 단순히 사무장을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희망권역의 리더라고 자부한다. 그래서 희망권역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나아간다. 하지만 제 아무리 날고 기는 사무장이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우리 희망권역 주민 모두가 함께하니까 두려울 것 없는 것이다. 세상살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듯, 혼자 보다는 여럿이 함께하면 행복도 기쁨도 배가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권역 주민들은 사무장의 든든한 백이 되고, 사무장은 권역주민의 질기고 튼튼한, 절대 떨어지지 않는 백이 되어야 한다.

잊지말길. 이 책의 마지막을 펼치고 있는 그대가 누구인지를.....

"나는 사무장이다!"

3장 부 록

주요체험프로그램 진행과정...

사무장을 다섯글자로?...

사무장을 다섯글자로?

권역 사무장을 다섯글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무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은 사무장을 이렇게 말하네요!
 어떠신가요? 공감하시나요?
 좌악 보시고 슬쩍 덧글을 달아보시죠.

<input type="checkbox"/>	아지나(연당권역) 11.10.14, 10:59 약방에감초	답글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연당권역산지기 11.10.14, 11:36 고향에 희망	답글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깜틀미(무안월선권역) 11.10.14, 12:40 농머흔체험 봉미 김선달	답글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가시리 11.10.14, 13:28 저는 더 고민하고 올리겠습니다...	답글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benjamin 11.10.14, 20:38 농촌의 희망. 인내의싸앗.가을의결실.권역의기동.....^^	답글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안당 11.10.14, 21:19 거름속효모	답글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안당 11.10.14, 21:26 사무장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전국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의 옷뜨르를 기준(굉장히 주관적)으로 볼때는 사무장의 업무역할과 영역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제가 너무 강성이며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전국의 사무장님들이 도끼들고 오실것 같은 불길한 예감~~~~~	답글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금산신안권역 11.10.15, 00:14 대안실천가,대안의실천	답글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금산신안권역 11.10.15, 00:15 지식인들이 제안하는 이론적 대안의실천을 통해 농머흔 현장에 정착을 가능케하는 사무장,사무장은 (대안실천가)이다 (대안실천가)(대안의실천) (대안실천) (대안과실천)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금산신안권역 11.10.15, 00:13 사무장은 (대안실천가)이다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농촌디자민 11.10.15, 01:16 사무장은 "마을(또는 지역)의 얼굴"이다	답글 삭제 신고

- 지산(문수골·남상경)** 11,10,15, 08:21

희망 동반자...
마을 동반자...
출렀는데 어데로 가뻘렀나...????
ㅋㅋㅋㅋ

[답글](#) [삭제](#) [신고](#)
- 돈지권역(진도조현호)** 11,10,15, 10:37

희망농촌 진도돈지권역♥ 있습니다 ~~~

[답글](#) [삭제](#) [신고](#)
- 금나루무지개사람들** 11,10,15, 11:26

울트라캡장

[답글](#) [삭제](#) [신고](#)
- 금나루무지개사람들** 11,10,15, 11:41

"진공청소기"

권역의 골치 아픈 문제들을 화~~~~악 쓰러 버리닝께!!!

[답글](#) [삭제](#) [신고](#)
- 자갈산** 11,10,15, 21:07

좀 췌거 아이가?

[삭제](#) [신고](#)

- 땡김** 11,10,15, 11:35

사무장은 "희망의 씨앗"이다^^
사무장 매뉴얼 발간준비하시느라 많은분들이 수고해주시고 계시네요..,마지막 회의를 저희 자갈산권역에서 하셨는데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말 드립니다..^^;
사무장의 역할은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권역에서 어떻게 사무장의 자리를 잡아주고 어떤 정성을 쏟느냐에 따라 그 역량 발휘는 두배세배 늘어나라 생각합니다.
씨앗을 심어는 놓았지만 그곳에 어떤 정성을 들이느냐에 따라 예쁜꽃이 될지 시든 꽃이 될지~~~
사무장님들!!! 모두 모두 농어촌의 "희망의 씨앗"으로 무궁무진한 역량을 발휘하시길 바랄게요...

[답글](#) [삭제](#) [신고](#)
- 회룡포 어울마루** 11,10,15, 11:51

헐..과장님 닉네임 엄청 고상(?) 하셔요잉 ㅎㅎ

[삭제](#) [신고](#)
- 자갈산** 11,10,15, 21:05

과장님.. 저 요새 시들 시들한데 정성 좀 들여주세요..^^ 밥도 좀 사고..

[삭제](#) [신고](#)
- 회룡포 어울마루** 11,10,16, 15:56

땡김 과장님~~진속이 배고프대여~~~밥 사주이소.

[삭제](#) [신고](#)
- 자갈산** 11,10,24, 11:26

밥 잘 먹었습니다데이..^^

[삭제](#) [신고](#)

- 금나루무지개사람들** 11,10,15, 11:31 답글 삭제 신고
 "배다른형제"
 권역 주민들한테는 농촌공사, 농림부 편이라고 욕먹고
 농촌공사, 농림부에 가면 권역 주민편이라 욕먹고....
- 앵강다숲마을** 11,10,15, 14:39 삭제 신고
 ㅋㅋㅋㅋ... 정말 맞는말 ...
 혼자 한참 웃었습니다...
- 조수골권역(송영아)** 11,10,17, 11:41 삭제 신고
 ㅋㅋㅋ 저도 여기에 한표요!!
- 미승한** 11,10,17, 13:19 삭제 신고
 주민편이라고 욕한적이 없는거 같은데..... 이상하네...
- 상주은자골** 11,10,17, 18:08 삭제 신고
 주민 편 안들고, 농림부 편만 든게죠~ㅋㅋ
-
- 금나루무지개사람들** 11,10,15, 11:33 답글 삭제 신고
 "자일리툰겜"
 단물만 쪽~~~~빨아먹고 발버 버리니까~~~~
 우리권역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오해 없으시길)
- 자갈산** 11,10,15, 21:31 삭제 신고
 ㅎㅎ 먹는 사람은 단물먹어서 좋겠고 사무장이 껌이면 입속 꾸린내..찌꺼기 다 싸서 나와야되는거?..
 그러면 돌 다 시~원할까요?
-
- 금나루무지개사람들** 11,10,15, 11:40 답글 삭제 신고
 "일곱난장이"
 주연은 아니지만 제법 비중있는 역할을 하니까~~~~
 백설공주(위원장, 권역주민들)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니꺼!
- 회룡포 어울마을** 11,10,15, 11:50 삭제 신고
 명웅마~~왜 여기서 이러는겨?ㅋㅋ
 자유계시판에 올리라잖아. ㅋㅋ
-
- 금나루무지개사람들** 11,10,15, 12:21 답글 삭제 신고
 끝까지 안 읽어 봐서~~~~
 그럼! 여기올린 다른 사람들은 멍미~~~~~
-
- 금나루무지개사람들** 11,10,15, 12:21 답글 삭제 신고
 일루 링크되어 있네~~~~~

- 👤 **동구리안 씨니** 11.10.17, 16:44

사무장은 마을며동생..마을남동생..마을구수미..울랄라캅송..
우와~~잠나네,,,ㅋㅋㅋ

[답글](#) [삭제](#) [신고](#)
- 👤 **영광대경초록권역사무국장** 11.10.17, 22:23

ㅎ 재미있는 공모네요 ㅎㅎ 사무장은 "동내복이다" ㅎㅎㅎ 여기서 동내 복이란 표현은 여러주민들의 대변인 이라는 뜻입니다 ^^

[삭제](#) [신고](#)
- 👤 **지평선들넉권역** 11.10.25, 13:24

사무장은"스티브 잡스"다
기획부터 ~ 설명부터 모든것을 총괄하고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머리를 맞대고 모든것을 하나에서 열까지 생각, 토,
논하고, 자신심도 있고, "Apple의 CEO" < 오윤택위원장 말씀>

[답글](#) [삭제](#) [신고](#)
- 👤 **금나루무지개사람들** 11.10.18, 18:26

"일등은 내꺼"

머달거나 일등해야 하니까~~

이번 이벤트도 "일등은 내꺼"

[답글](#) [삭제](#) [신고](#)
- 👤 **금나루무지개사람들** 11.10.18, 18:31

"미친 yeon nom들"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미칠 수 있으랴~~

(표현이 좀 거시기 하네요~~)

[답글](#) [삭제](#) [신고](#)
- 👤 **금나루무지개사람들** 11.10.18, 18:32

"부가가치세"

언제나 권역의 희망에 10%를 덧붙여 주니까

[답글](#) [삭제](#) [신고](#)
- 👤 **파란하늘** 11.10.18, 19:52

"내무부장관"이다~
우리집 내무부 장관은 마늘이거든요~~ ㅎㅎ
(현재는 내무부가 기획재정부가 됐지여~~)

[답글](#) [삭제](#) [신고](#)
- 👤 **에코 메아리** 11.10.18, 19:55

근데 공모마감이 언제예요???

[답글](#)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자굴산 11,10,15, 21:49 권역의요인, 마을의요인 권역에서 꼭~ 필요한사람, 마을에서 꼭~ 필요한사람. 음... "요주의인물!!" ㅎㅎ	답글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삼주는자골 11,10,16, 08:04 "없으면 안돼" "가움의 단비"	답글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회룡포 어울마을 11,10,16, 15:59 니를 왜 이르는겨? ㅋㅋㅋ 상품에 눈 멀어서 그러는겨? ㅋ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삼주는자골 11,10,17, 10:31 다섯글자만 보면 막 적고 싶은걸 어떡해여? ㅎㅎ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경북 구미 모래가정권역(이동현) 11,10,16, 10:16 사무장은 농촌의 <희 망 C E O>이다... 지금 미국과 FTA는 기정 사실화 되고 있고 그러면 농촌이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제는 농촌도 농산물을 생산 단순판매해서는 더 나은 삶이 보장되지 않으리라 보구요, 앞서가는 농촌선진마을을 연구하고 자기가 속한 마을에 가장 알맞는 전략들을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자기마을을 가장 잘 경영해 나가는 능력자가 바로 농촌마을 사무장들이 해야할 일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은 농촌 희망 최고 경영자라고 봅니다 저는...	답글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농촌지킴이 11,10,16, 16:19 사무장은 마을길잡이이다, 사무장은 마을뜨프미이다, 사무장은 마을의보석이다, 사무장은 행복발전소이다, 사무장은 경영지도자이다, 사무장은 마을의미소이다, 사무장은 마을의얼굴이다, 사무장은 마을전도사이다, 사무장은 마을버팀목이다, 고로 사무장은 토끼와거북이다.(때로는 토끼가 되고 때로는 거북이가 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읽고 조정과 타협을 통한 합의점을 이끌어가는 사무장님들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농촌의 새로운 희망이 보입니다)	답글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저산(문수골: 남상경) 11,10,17, 02:37 말그대로 *농촌 지킴이*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저산(문수골: 남상경) 11,10,17, 02:39 땅위의 병정	답글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녹고뫼 nokgomoe.com 11,10,17, 10:18 혁신의 시작이다.....^^	답글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지평선들녘권역 11,10,17, 11:01 "행복 발전소" 이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는 없어서는 안되고 ~~ 사업에 있어서 꼭 ~~꼭 필요한 인재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전가능성을 위해서 1% ~ 200% 노력하니깐요 어느뎌 위원장보다도 혹은 추진위원보다도 더 필요한 존재이지않을 까요	답글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비비디비비디부 11,10,18, 23:22 그러게요... 공모 발표만 있고... 공모마감일은 없네요... ㅎㅎㅎ	수정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광산권역 11,10,20, 07:24 三人行이면 必有我師라 三人行 必有我師 [삼인행 필유아사]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는 뜻으로, 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경계(警戒)하게 되므로 선악(善惡) 간(間)에 반드시 스승이 될 만한 이가 있다는 말 공자가 한말로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를 주장한 2500년 전, 공자처럼 21세기 세계적 석학들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지적검손을 꼽았음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저는 "필요한사람"으로 신청합니다., ㅎㅎㅎ 추가"희망바라기"합니다.,	답글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가시리 11,10,20, 22:13 사무장은 "희망제작소", "초코파이정"	답글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권봉산 11,10,19, 16:14 사무장님들은 "타고난 일꾼" 이라고 하고싶네요	답글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농촌지킴이 11,10,19, 16:18 사무장은 농촌매니야이다.(정감이 서리고 풋풋한 느낌)	답글 삭제 신고

홍린타지(재중영-농어촌공사) 11,10,20, 16:41 답글 삭제 신고
 사무장은 <만능마당쇠>이다.
 온갖 굶은일 도 맡아서 해야하는 분들이지요,
 위원장님 보필하는거 부터 각종행사의 알림꾼으로 살림꾼으로 마당쇠처럼 슈퍼맨처럼 일하시는.,
 권역에선 없어서는 안될 필수요원이지요,
 교육컨설팅홍보마케팅정보화까지 두루 섭렵해야 하는 만능일꾼이여야 하고요,

나주리 11,10,20, 17:14 답글 삭제 신고
 사무장은 마을활력소, 마을지킴이 ㅎㅎ^^

손호근 11,10,21, 15:03 답글 삭제 신고
 사무장은 농촌마을의 진정한 참 일꾼이지요...
 그래서 "마을참일꾼" 으로 하겠습니다.

둔덕권역(전복/임실군) 11,10,21, 15:46 답글 삭제 신고
 사무장은 " 농촌지킴이",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 마을의천사", " 마을에 굶은일을 알굴 분하지 않고 다하니까 ~
 "떠오르는 해" 앞으로 농촌에 촉망받는 일꾼들이 될테니까~ ,

꿈꾸는망 11,10,21, 16:34 답글 삭제 신고
 사무장은 <레알 빼에로 > 다!!!!!!
 모두(마을 주민, 운영위원, 관계기관, 소비자등등)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 슈퍼맨(?) 또는 슈퍼우먼(?)의 능력을 요구받고 있기에.....
 그러나..... 가슴 한구석엔 표현할수 없는 아픔이...고뇌가.....
 (무엇을 고민고민해보았지만 이보다 더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했음!~ 레알은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로서 진짜란 의미를 갖고 있음^^)

미래의 땅 능력권역 11,10,22, 03:00 답글 삭제 신고
 사무장은 (마을)사업 동반자 이다. - 사업 동반자
 사무장은 영원한 친구 이다. - 영원한 친구
 사무장은 (마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을 위한) 만능 탈렌트 이다 - 만능 탈렌트
 마을과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분인데 표현하기가 참 어렵네요...^^

지산(문수골: 남상경) 11,10,23, 10:42 답글 삭제 신고
 사무장은 *종합 예술인*

이승형 11,10,23, 20:33 답글 삭제 신고
 희망의 다리, 천재형 바보, 착한 마당쇠, 착한 조력자, 소통의 달인 등등..이유는? 다 아실걸~

자글산 11,10,24, 11:29 답글 삭제 신고
 당선작 발표 안하는거?

상주은자골 11,10,24, 12:38 삭제 신고
 당선될꺼라고 기대하고 있슈? ㅎㅎ

◀이전 1 2 다음▶

한밤마을_끼룩 11,10,13, 22:57 답글 삭제 신고
 F, T, A, 말, 알,
 세, 계, 화, 거, 림,
 도, 농, 매, 개, 자,
 백, 십, 육, 만, 원,
 농, 촌, 풍, 상, 가,
 긍정적으로 하면
 농, 촌, 지, 킴, 이,
 갈, 등, 중, 재, 인,
 당, 찬, 애, 국, 농,
 하지만 저는
 그, 냥, 마, 당, 쇠,
 멋지지 않아서 죄송!!...! 비비디비비디부! ♡♡♡♡♡♡

지산(문수골: 남상경) 11,10,14, 05:58 답글 삭제 신고
 ^^...
 행님 전화 번호 바꾸셨어요~~~????
 희망 동행자
 마을 동행자

<input type="checkbox"/>	해밀 11,10,14, 08:31 농촌선구자	답글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신보미 11,10,14, 10:35 문,화,나,농,이	답글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꿈꾸는땅 11,10,14, 13:07 300자 넘는다 답글로 하문 안되겠는교? ㅋㅋㅋㅋ	답글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상주는자골 11,10,14, 14:04 에너지이저	답글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십이령바지개꾼 11,10,14, 16:15 농어촌지기 : 농어촌을 참되게 알아주는 친구... 혹은..농어촌의 팔과 다리란 뜻... ㅎㅎ	답글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자굴산 11,10,14, 16:43 많이 움직이라는? 그런? ㅎㅎ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십이령바지개꾼 11,10,14, 17:51 위원장님 싸오신 망개떡 맛나게 먹었어요~ ㅎㅎ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십이령바지개꾼 11,10,14, 19:36 사무장은 [무릎팍도사] 이다, 1. 진행자의 역량에 따라 재미가 달라진다. 2. 대중과 소통이 이루어진다. 3. 고민을 타파해준다. 4.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만난다. 5. 세 명의 MC(위원장/사무장/관계기관)와의 호흡이 중요하다. 6. 제일 중요한 건 절대로 천기누설하면 큰일난다! ㅎㅎ...공감하시죠??	답글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자굴산 11,10,14, 20:37 공감! 공감!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조수골권역(송영아) 11,10,18, 10:21 공감..백배...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Success Partner 11,10,14, 20:51 사무장은 [만능재주꾼]이다.	답글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회룡포 어울마을 11,10,15, 10:46 무릎팍도사에 한표!!	답글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십이령바지개꾼 11,10,17, 09:38 감사!! 누룽지 받음 나눠드릴께여~~~ ㅎㅎ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회룡포 어울마을 11,10,15, 10:53 사무장은 " 동네 부우옥" 이다. ㅎㅎㅎ	답글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앵강다솜마을 11,10,15, 14:56 글자 숫자 맞추신다고 ... ㅎㅎㅎ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자굴산 11,10,15, 21:24 실제로 부우옥을 치면 오장육부에 좋아요..ㅋㅋ 가르쳐주지 마세요..매일 칠지 모르니까로... ㅎㅎ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금나루무지개사람들 11,10,15, 23:59 차~~~암 애쓰다~~~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상주는자골 11,10,16, 07:51 사무장은 "차암 애쓰다"이다. ㅋㅋ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회룡포 어울마을 11,10,16, 15:50 "배다른 형제" ㅋㅋ 아 웃겨서 죽는줄 알았다. 난 절대루 누룽지가 먹고 싶어서 그러는거 마녀. ㅋㅋ	삭제 신고
<input type="checkbox"/>	십이령바지개꾼 11,10,17, 09:42 차~암 애쓰다~~ 맘 속까지 확 와닿는 걸요..ㅠㅠ	삭제 신고

- 영광대청초록권역사무국장** 11,10,17, 22:27
 ㅎㅎㅎ 동감입니다

[삭제](#) | [신고](#)
- 행강다솜마을** 11,10,15, 14:57
 “희망의 일꾼”
 “권역 대들보”
 ㅎㅎㅎ 또 생각나면 올릴게요...

[답글](#) | [삭제](#) | [신고](#)
- 상주는자골** 11,10,15, 17:16
 사무장은 “희망바라기”이다.

[답글](#) | [삭제](#) | [신고](#)
- 돌산갯권역마을** 11,10,17, 10:23
 두루 어울림 (빠짐없이 골고루 두가지 이상의 것이 서로 잘 조화됨)

[답글](#) | [삭제](#) | [신고](#)
- 하동예다권역정봉임** 11,10,17, 15:51
 사무장은 “약에 쓸개똥”이다.

[답글](#) | [삭제](#) | [신고](#)
- 영광대청초록권역사무국장** 11,10,17, 22:29
 사무장은 “약방에감초” ㅎㅎ 감초는 여기저기 다스러듯이 우리의 권역 심바람 꾸민 사무장도 그렇지 않나요 ㅎㅎㅎ

[답글](#) | [삭제](#) | [신고](#)
- 마기사랑** 11,10,18, 20:51
 사무장은 만능이며,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더많은 노력중이에요.
 울말이 하는 말 “엄마! 나 알아요, 사무장은 <대단한 사람>이다. 예요” 라고 했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답글](#) | [삭제](#) | [신고](#)

발행일 : 2011. 12. 14

발행인 : 농어촌정책국장 정황근

발행처 : 농림수산식품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글쓴이 : 한국농어촌공사 조경순

각 색 : 권영란

감수자 : 농림수산식품부 이승한 주무관, 한국농어촌공사 손옥용 차장

참여자 : 농림수산식품부 윤동진과장, 김경두 사무관

한국농어촌공사 이철오 처장, 남길현 팀장

도움주신 분 : 삼농연구소 이승형, 한국농어촌공사 이신우, 금계권역 권순근, 김명웅, 삼당권역 강성국, 알토란권역 박주연, 지평선들녘권역 김경희, 모평권역 이명숙, 회룡포권역 신영식, 은자골권역 신연옥, 앵강다숲권역 김상오, 자굴산권역 위진숙, 예다권역 정봉임, 가시리권역 이선희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사용하려면 반드시 농림수산식품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